



SNUAA Brain Network Workshop

새로운 기술의 도전

2018년 3월 31일 (토)

MIT Stata Center
Cambridge, MA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후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생회
MIT 한국학생회

1. 주제: 새로운 기술의 도전

스팀 엔진이 1700년 중반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반도체는 1900년 후반부터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은 미래의 반도체와 인터넷 기술에 비유되는 신기술로 그 전망이 주목된다.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기술을 개발한 강기동 박사와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대표와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2. 프로그램

- 3:00 - 4:00 강기동: 반도체 기술의 산업화 경험
- 4:00 - 5:30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 5:30 - buffet dinner

3. 연사



▲ 강기동: 한국 반도체의 태동

새로운 반도체 기술인 CMOS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을 한국에 들여와 현재의 삼성의 모태 역할을 했다. 새 반도체 기술을 상품화, 기업화하는 과정과 그 당시의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되돌아 본다.



▲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 체인의 미래

2013년 한국 최초의 암호 화폐 거래소 '코빗'을 공동 창업했으며, 지금은 암호 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디렉터를 맡아 정부기관, 국회, 금융기관 등에 암호 화폐 가능성과 미래 가치 등을 교육한다. 2013년 암호 화폐 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단행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을 출판했다.

인터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고색 창연한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옆의 아펜젤러관 사무실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찾았다. 반기문 총장이 연세대가 설립한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으로 있는 곳이다. 반 총장은 IOC 윤리위원장, 반기문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 등 많은 직함을 갖고 여전히 분주한 일정을 보내면서 세계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들어서자 반기문 총장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어 고맙습니다."

자리를 잡고 인터뷰에 앞서 인사 겸 초입부로 어제 노르웨이 수상과의 오찬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 어제 노르웨이 수상과의 오찬은 잘 하셨어요?

"네, 어제 오찬은 잘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등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어제 까진 독일이 앞서 있었습니다만..."

-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여성 분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엠마 솔버라고...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SDG)'가 있는데 거기에 'SDG 어드보케이트 (Advocates)'가 있어요.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제가 사무총장 재임시 전 세계적인

로 어드보케이트 (Advocates)를 15명 임명했는데, 그분들 개발국가를 대표하는 코 체어로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어드보케이트 (추진; Advocate)를 하는 거죠. SDG는 제가 시작했지요. 벌써 4년이 되었어요. 밀레니엄 발전과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가 끝나고 SDG로 되면서 계속하는 거지요. (벽에 걸린 연세대 글로벌공헌원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표지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반기문세계시민센터가 있는데... 제가 유엔 사무총장 재임 때 하던 일을 지금은 직책없이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 추진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화는 잘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 총장이 현재 명예원장으로 있는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연세대가 글로벌사회공헌원을 만들었는데 (IGEE) 제가 여기 명예원장을 하고... 또 비엔나에서 지난 2018년 1월 3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가 만들어져 이 두 센터를 연결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 4면으로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div><div></div> 이항렬(법대 57)</div> <div> <div><div></div> 논설 위원장</div></div>
--

목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SNUAA Brain Network Workshop / 인터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 기고: 미국의 비극, 이항렬
- 기고: '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 김상조 / 성장하는 북한경제?, 백 순
- 인터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정태영 이영민
- 인터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정태영 이영민
- 기고: AI 시대 생명윤리, 서경화
- 기고: 남가주 방문 후기, 유상래
- 지부 소식: 조지아 지부 동창회, 워싱턴 DC 동창회
- 지부 소식: 남가주 의대 동창회, 워싱턴 주 동창회
- 지부 소식: 뉴욕 약대 동문회 / 동문동창: 한국 IT 1세대 중심에는 '공대 85·86'이 있다, 박수진
- 동문문단: 오봉완, 이희만
- 기고: 조선말기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박성현
- 동문동정: 김수영(사대 57) 동문, 정홍택 (상대 61) 동문, 이원영 (사회 81) 동문 / 사: 이홍빈
- 기고: 해탈은 배탈이다, 김지영 / [진액 세상] 한국 '미투'의 역사적 의미, 이원영
-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안내
- 미국속 나의 발자취: LA 코리아 타운을 만든 김진형 (문리대 55) 동문

- 사: 오세경 / 87년의 기억, 정홍수
- 어른을 위한 동화 파치의 모험, 정홍택
- 어른을 위한 동화 파치의 모험, 정홍택
- 기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 김경욱
- 기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 김경욱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2018 장학성 모집 공고
- 기고: 樂山 樂水 樂女 요산 요수 요녀 Vis Viva, Costa Rica, 이원택
- 기고: 樂山 樂水 樂女 요산 요수 요녀 Vis Viva, Costa Rica, 이원택
- 가별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이준형
- 후원금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동창회비 집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 미주 동문 협소록
- 미주 동문 협소록
-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광고, 종신이사회비
- 광고



김상조 (상대 81)

“착한 놈이 일등 한다(Nice guys finish first).” 리처드 도킨스의 명저 <이기적 유전자>의 제12장 제목이다. 1976년 초판에는 없던 장인데, 1989년 개정판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작년에 글을 쓰면서 인용할 부분이 있어 뒤져거리다가, 12장 전체를 다시 읽게 되었다. 새삼 감탄했다. ‘죄수의 딜레마’의 의미와 그 극복 전략을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더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경제학개론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게임 이론’의 기초다. 요약하면, 검찰이 두 명의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①별개의 취조실에 격리시켜 놓고, ②‘너만 자백하면 너만 풀어 줄게’라고 제안하는 경우를 묘사한 것이다.

결과는?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며칠 구류 살고 나올 뿐인데,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몇 년씩 감옥에서 썩게 된다.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게임의 구조에 그 답이 있다. ①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자’라는 협력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소통의 부재다. 또한 ②자백(배신)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얻는다. 보상구조의 왜곡이다.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 전체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은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영남과 호남, 어르신과 청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등등으로 온 나라가 쪼개져 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상대 진영의 비판보다도 같은 진영 내의 비난이 더 두렵다. 파문당하면 끝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합의를 할 때 상대방의 보복보다 같은 편에서 받는 보상이 훨씬 크다. 그 결과 배신이 난무하고,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런 죄수의 딜레마, 진영논리의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기적 유전자>의 제12장이 제시한 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이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한 이 경구는 매우 잔인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다. 사적 처벌이 횡행하던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이 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의 눈만 상하게 하라’는 식으로 과잉보복을 금지한 합리적 규칙이다.

나아가 도킨스는 이를 ‘착한 전략’으로 재해석한다. 상대방이 배신할 때는 보복하지만 내가 먼저 배신하는 일은 없으며 (nice), 배신했던 상대방이 반성하고 협

‘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

력 행동으로 돌아오면 바로 용서해주고 (forgiving), 이 전략을 취할 때 내가 얻는 이득은 상대방보다 크지 않지만 이를 시샘하지 않는다(not envious)는 것이다. 이 험한 세상에 과연 이런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의심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놀랍게도 이 착한 전략의 승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만 언제 나 승리하는 건 아니다. 착한 전략의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도킨스는 강조한다.

첫째, 이 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반복 구사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헌, 대연정, 경제민주화 등등의 거대 이슈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 되면, 다른 사소한 이슈들은...’이라는 백병성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협력에는 보상, 배신에는 벌칙’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체화하는 오랜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조급증을 버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그 전략을 따르는 사람의 비중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야 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진영논리로는 그 임계치를 넘어설 수 없고, 죄수의 딜레마로 퇴화하는 실패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국민도 변해야 한다. 진영논리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뽑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비판 세력은 더욱 강고해지고, 지지 세력도 조만간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 최선보다는 현실적 차선의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은 ‘가짜뉴스만 믿지 말고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국내의 경제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국내 소비 및 투자 동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만큼이나 정체되어 있다. 정말로 어렵다. 협력의 장기적 이익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배신의 단기적 유희는 더욱 커졌다. 조기 대신으로 출발할 ‘준비 안된 대통령’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정치적 메시아도 없다. 대통령의 일관성과 국민의 인내심, 우리 모두의 헌명함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 유전자> 제12장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정치적 메시아도 없다. 대통령의 일관성과 국민의 인내심, 우리 모두의 헌명함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nice), 배신했던 상대방이 반성하고 협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경제(\$28.5 billion)가 2016년 그 규모가 한국경제(\$1.411 trillion)의 2%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3.9%의 비교적 좋은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 있으며, 더구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인하여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경제가 예상 이상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주간지 에코노미스트 등 여러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점점 참여드는 국제적인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김정은의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의 요소가 북한경제에 깃들기 시작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북한경제를 근래 3.9%나 성장시킨 시장경제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크게 나누어 2가지의 요소가 북한경제에 발전되고 있음이 알려 지고 있다.

첫째요소는 1990년대 대기근으로 국가보급기구가 망가진 이후 김정일이 도입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이다.

‘일강북한’ 소식에 의하면 2017년 8월 현재 국가관리 장마당이387곳이나 있고 반백만 점포를 개설하고 있어서 북한인민의 30%가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즉 비록 소 규모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요인가운데 하나의 필수 요소인 시장경제가 극히 국가보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도입되고 있어서 북학경제의 성장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요소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장마당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김정은의 통치

성장하는 북한경제?

이후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종합기업회사이다.

북한의 종합기업회사는 국가의 소유나 국가의 관할이라는 사회주의적인 특수성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의 운영과 관리, 개인의 자산투자 등등을 허용하고 있어서 근래 북한경제를 매우 활발하게 부추키며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내고행’회사는 담배, 카드, 태월, 운동기구, 전자제품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고려항공회사는 담배, 고동어 통조림, 택시, 경비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종합기업회사이다.

그리고 승마클럽, 스키장, 전화회사, 육군 운영 해산물회사 등등의 기업활동도 북한경제를 성장시키는 분야인 것이다. 더 나아가 2014년이후 북한은 국가소유 및 국가운영종합기업회사들이 개인으로부터 자산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기업의 거대화과 성장을 부추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기업회사들이 외국기업과 교역하고 합작투자등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하여 북한기업의 해외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교수이었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셉 슌페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요인은 사장의 확산과 기업의 성장이라고 제창한 바 있다. 북한경제의 최근 성장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요인인 장마당의 확산과 종합국가기업회사의 활성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북한경제가 장마당과 종합국가기업회사와 같은 시장경제적인 요소의 활성화로 인하여 중국경제와 같이 국가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로 성장·발전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건전한 중산계층이 확산하게 되어 북한의 개방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제27차 평의원 회의

2018년 6월 15-17일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reet, Natick, MA 01760

호텔 예약 등 자세한 안내는 P15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인터뷰

‘세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천 위해 동분서주

>> 1면으로부터

“지난 2월 7일에서 8일에는 두 센터 공동 주관으로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현 UN 사무총장, UN 총회 의장, 하인즈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잭 마(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그 외 많은 국제적인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왔더군요.

비즈니스, 정부, 시민사회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자고 했는데, 아주 대 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 어떻게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UN에서 추구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입니다. 즉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임을 저야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을 저야한다는 것인데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정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자원이 많아도, 어느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이제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파트너쉽이지요. 정부, 비즈니스 커뮤니티, 시민사회 이 세가지를 강조했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UN 하면 정치분쟁, 난민구호, 인권, 기후협약, NGO 등 이런 것을 주로 연결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기업이 파트너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UN이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UN 사무총장 했을 때 두가지 했었는데... 뭐 물론 평화다, 갈등 해소다 이런 것은 그 전부터 해오던 거고,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기관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 아카데미 임팩트 (AI)를 창설했습니다. 세계 몇 천개 대학이 거기에 가입했지요. 한국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좋은 그리고 젊은 미래 지도자를 창출해 내고... 지도자만 창출해 내는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계속한 거지요.”

“또 하나는 전임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 창설했는데 제 책임시에 확장을 시킨 게 UN Global Compact입니다. 여기에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 12,000개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도 240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지요. 기업 공동체(business community)는 이윤만 추가하는 데는 아닙니다. 기업 공동체에는 UN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원들의 인권, 인격권 즉 휴먼 디그니티 이런 것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 책임 (ac-

“국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글로벌 리더쉽이

아니고 내셔널 리더쉽으로 활동하기 때문”

일시:	2018년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
장소: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실
대담:	정태영 (문리 71입,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 이영인 (사대 74입,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



countability), 노사 관계 등이 들어 있지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Sustainable Business)를 하느냐... 에너지, 물, 즉 자원을 어떻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사용하느냐...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친화적 원칙을 정해 기업들이 솔선 수범하게 하느냐... 등등을 통해서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서로 연관되고 맞물려 커다란 바퀴가 되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딱딱한 주제에서 잠시 벗어나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 총장님 이력을 알기 위해 찾아 보니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을 하셨더군요. 그 이후에도 외무 고시에서 차석, 그리고 외무부에 들어오셔서 연수 과정에서 수석 등 1등을 하신 전력이 많습니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등은 사회에 나와서도 (본인이 계속 올라보게 하는 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도 그러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는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 1등이 사회 나와서 1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습니디. 그런데 총장님의 경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정상에 오르셔서 매우 바람직하고 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옹당 받아야할 대우를 받으셨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와 미국, 유럽 사회는 많이 다르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티그리티(integrity)를 얼마나 갖추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쟁적 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즉 휴먼리티

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휴머니티를 잘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고도의 경쟁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전체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에도 계층간의 위화감이 많지만 거기엔 확실한 공개념, 즉 공적인 원칙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유경쟁을 시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다 인정을 하지요. 대신 어떤 과정에 불법 특권이 있으면 절대 용서를 안하지요.”

“우리사회(한국) 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우리도 고도의 경쟁심이 많은 나라고... 한국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성취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최단 기간에 고도 성장과 고도 민주화를 해 냈습니다. 영국이 900년 걸린 것을, 그리고 미국도 건국 이래 오랜 기간 많은 조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한 거지요. 이 기간에 계층간의 불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진보다 보수가 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진보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진보라는 개념이 억압을 받았지요. 지금은 내가 보수다 내가 진보다 하고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서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에는 우리보다 더 진보된 사람이 많습니디. 아예 공산당이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산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과 다르거든요. 센터 레프트나 라이트나 문제이지 극단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평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열악하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에선 평양 하고 지방은 다릅니다. UN 다녀온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1960년 아니면 1970년대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수레 끌고 다니고... 에너지, 전기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UN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미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핵 하나 터뜨리고, 미사일 한 발 쏘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핵을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은 매드(mad)라고 합니다. 즉 미친 것이지요. 매드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입니다. 이젠 쏘면 둘 다 확실하게 죽

“우리 사회도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 비용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시간과 돈을... 왜냐하면 끊임 없이 레이버 디스퓨트(노동 분쟁)가 일어나

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세대) 총장실을 다녀왔는데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원래 여기에 총장실이 있는데 지금 (노조 투쟁)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즉 차를 타고 다른데 시간을 들여 다녀온 것 등)이 모두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 등 기업들이 1년에 기회비용으로 몇 백억, 아니 조 단위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수십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정부도, 노동계도 고쳐야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이 억압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날 연세대 교정에는 청소 근로자, 기타 관리 직원 노동자를 지지하는 노조에서 붙인 현수막과 정의당 등 사회주의 계열 현수막이 가득했다)

“제가 190개 이상 국가를 방문해 보았는데... 몇 나라만 제외하고 다 다녀보았는데...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나라가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60년 70년 전에 식민지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다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형편없이 퇴보한 나라도 있어요. 제도도 퇴보하고, 인사 스펙터치도 퇴보하고, 경제도 퇴보하고... 거기서 고통 받는 것은 사람 즉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서든 먹을 거는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많이 사람들이 지도층과는 다른 삶을 하지요. 세계은행이 정한 국민선이 \$1.90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10억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국민층에 있으면서 소외되는 사람을 없애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SDG) 목표입니다. 아직도 안전한 식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12억,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14억이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평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열악하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에선 평양 하고 지방은 다릅니다. UN 다녀온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1960년 아니면 1970년대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수레 끌고 다니고... 에너지, 전기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UN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미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핵 하나 터뜨리고, 미사일 한 발 쏘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핵을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핵은 매드(mad)라고 합니다. 즉 미친 것이지요. 매드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입니다. 이젠 쏘면 둘 다 확실하게 죽

“우리 사회도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 비용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시간과 돈을... 왜냐하면 끊임 없이 레이버 디스퓨트(노동 분쟁)가 일어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인터뷰

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쓰겠느냐... 인구 역사상 두 번 썼는데, 그 이후론 어떤 국가도 핵을 쓰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냉전시대에도 핵을 선제공격, 즉 퍼스트 스트라이크(first strike) 한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핵으로 공격 받으면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하겠다는 거지 퍼스트 스트라이크 하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북한만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하겠다... 미국의 심장부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을 포함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50년 후 또는 100년 후에는 어떻게요?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불가능 할겁니다. 현재 거부권이란게 있는데 그걸 없어서 좀 더 자유롭고 효과적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decision making process)를 만들자고 하지만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자고 하면 또 거부권 가진 사람들이 또 거부를 할 것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인터뷰 주요 질문은 시작도 못했다. 서둘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UN이 국제정치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10년 재임 경험과 관찰에서 바라보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국제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글로벌 리더쉽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리더쉽이 아니고 이 분들이 내셔널 리더쉽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 사회는 인터넷이든 사회가 되어 글로벌이나 내셔널이나 차이가 없습니디. 다 글로벌이니까. 지금 0.5초면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데 뭐 내셔널 그런 것을 따지느냐입니다. 그전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망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나라 봤지만... 실제상 지도자들이 하는 건 자기 국민들과 자기 나라만 위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더 생기고 분쟁이 나면 해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UN 외부에 계시다가 UN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가셨습니까. 가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젠 좀 리모델링이나 리오가나이지이션 하겠다 하는 생각은 안 보셨나요?

“그건 제가 많이 했지요. 부분 부분 많이 했습니다. 트랜스퍼런런스 (투명성) 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이런걸 아주 높이 해 놓았습니다. 에직스, 에직칼 스탠다드를 올렸습니다. 직원들의 모빌리티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UN의 업무를) 디지털화했어요. UN이 컴퓨터 뭐 이런 것에는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UN을 하나로 디지털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 하여튼 이메일 이런 것을 쓴 최초의 사무총장입니다. (참석자 웃음) 그전의 사무총장은 그런 것 안했어요”

-아주 귀중한 기회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라고 하는데 아주 단견적(short sighted)입니다. 세계의 1 국가 지도자로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혼자 잘 살아볼 수가 없어요. 몇 년은 되겠지요. 그러나 미국 혼자 통상을 안하고 협력을 안하고 어떻게 미국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UN은 국제정치적 분쟁 해결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차원 강제력을 갖는 세계정부 (world government)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윤리 분야는 아마어마하게 강조한 것 같아요. (UN 직원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게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UN이 그런 역할을 해 온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지요. 그런데 UN은 분열 요소가 많아 그게 안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50년 후 또는 100년 후에는 어떻게요?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불가능 할겁니다. 현재 거부권이란게 있는데 그걸 없어서 좀 더 자유롭고 효과적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decision making process)를 만들자고 하지만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자고 하면 또 거부권 가진 사람들이 또 거부를 할 것이니까요.

제가 UN의 효율성이나 효율성 등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UN을 해체한다면 내일 모레 당장 다시 UN을 또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나마 UN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와서 아주 유니버설한 레프리젠테이션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구입니다.

세계 어떤 기구도 UN처럼 아주 유니버설한 기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 UN에 관련 기관이지만, 유네스코 다... IAEA 다... 유니세프 다. 있지만 그것은 멤버쉽이나 권능에 있어서 일정 특정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니버설하고 모스트 레지티비티하고 이런건 UN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너쳐(nurture)해서 나가야지요. 이걸 비판만 한다... 이젠 좀 안좋다 이겁니다.”

-UN 외부에 계시다가 UN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가셨습니까. 가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젠 좀 리모델링이나 리오가나이지이션 하겠다 하는 생각은 안 보셨나요?

“그건 제가 많이 했지요. 부분 부분 많이 했습니다. 트랜스퍼런런스 (투명성) 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이런걸 아주 높이 해 놓았습니다. 에직스, 에직칼 스탠다드를 올렸습니다. 직원들의 모빌리티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UN의 업무를) 디지털화했어요. UN이 컴퓨터 뭐 이런 것에는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UN을 하나로 디지털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 하여튼 이메일 이런 것을 쓴 최초의 사무총장입니다. (참석자 웃음) 그전의 사무총장은 그런 것 안했어요”

“물론 UN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했지만... 컴퓨터 마인드가 없고, 테크놀로지도 아주 아웃 데이티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많이 통일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간의 컴퓨터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지요.”

-UN에서 윤리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윤리 분야는 아마어마하게 강조한 것 같아요. (UN 직원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리되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직원들이) 싫어했죠. (일동 웃음) 그러니까 (총장을) 끌고 나가니까... IOC에서... 자꾸 체육기관들도... 뭐 알지만 IOC, FIFA 뭐 많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을 맡아 달라해서 제가 IOC 윤리위원장을 맡았어요.”

-한반도를 전통적인 밸런스 어브 파워(balance of power)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재편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균형판의 흔들림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균형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장도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미중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니까. 중국이 G2 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수치로 본다면 중국이 G2 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중국이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밸류나 행태나 이런데 있어서 과연 G2에 (걸맞게) 하고 있느냐. 아마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왜냐면 인권 문제 라든지, 시민사회 라든지 종교의 자유 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급속히 성장을 했지만 어떤 국제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에서 일정 특정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니버설하고 모스트 레지티비티하고 이런건 UN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너쳐(nurture)해서 나가야지요. 이걸 비판만 한다... 이젠 좀 안좋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미국하고 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을까... 그런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간에 지엽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워낙...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컨시퀀스(결과)도 다 아는 겁니다. 책임도 알고 후과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 가면서 보완해 가고... 그러나 중국이 자기 핵심 이해 관계... 아주 바이털 인터리스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양보를 안할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원 차이나 폴리스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약간의 이해 관계의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나간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봐서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를 가로 지르는 (국제역학상) 균형선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엽적인 여러 충돌 관계가 있는데,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딱 떨어져서 이젠 둘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다... 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 돌원해서 미국과 중국이 딱 손을 잡아서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거지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IOC 윤리위원장으로 느끼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윤리위원장의 느낌으로서보다도 전직 UN 사무총장으로서 여러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 해결해 나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하게 된 국민들의 슬기이고, 어떤 면에선 행운이기도 하고... 남북한 간의 모처럼 조성된 계기를... 이게 아주 작은 대화의 문이거든요. 이걸 좀 더 폭을 넓혀서 진정으로 의미있는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하지요. 이제 한국 선수들이 국제적으로 경주를 해도 손색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인터뷰는 거의 8개월 전부터 구상했다. 반 총장이 보스턴에 하버대학교 펠로우쉽으로 지난 2017년 여름에 체재하는 동안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나, UN 사무총장으로서의 폭 넓은 경험과 관찰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인터뷰 기회를 통해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랐다. 한국인으로서의 유일무이하게 세계 무대의 정상에서 세계를 보아 왔던 그 경험과 관찰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틈틈히 무엇을 여쭙 봐야 하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를 메모해 왔다.

궁금한 점은 여러가지 있었다. 국제분쟁의 중재자로서의 UN 역할,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문제 등등.

그래서 질문 요지도 이리 저리 수없이 구상하고 정리해 보았지만 역시 결론은 딱 한가지였다. 세계에서 더 이상 전쟁이나 무고한 인명 사상 행위를 막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즉 ‘왜 UN이 전쟁이나 테러 방지를 위해 제 기능을 못하는가? 그 해결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이었다. 수많은 학자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정상에서 바라보고 활동하고 현장에서 본 지도자 입장에서...

반기문 총장은 바쁜 일정에도 서울대 미주동창회 동문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분쟁 부분에선 핵심적이고 개괄적인 견해를 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해결이나 대안이 기대되었다. 한편 이번 인터뷰를 통해 UN의 변모 모습과 활동을 보았다. 국제 분쟁의 해결자로서 UN의 기능이란 고전적 이슈를 가지고 대담에 나섰는데 별도로 UN의 신버전이랄 수 있는 현대 세계 사회의 네트워크 역적인 새로운 UN의 활동 내용을 들여다 보는 수확을 거두었다.

나귀식 동문 (사대 70입)이 흔쾌히 사진 촬영 요청을 수락해 수고해 주었다.

<정리: 정태영 논설위원 (문리 71입)>



서정화 (법대 51)
총동창회 회장

AI 시대 생명윤리

시각에서 유래한다고 경고했다. 기술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학들은 기술 영역을 넘어 철학과 윤리학의 뿌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기술이 한계를 넘나들수록 그에 걸맞은 심오한 인문학적 해결책을 항상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세기 대량파괴 무기로 사용된 NBC(핵, 생물, 화학) 중심의 기술들이 대부분 정부

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에는 반드시 과학적인 사실의 파악과 더불어 인문적인 직감과 비판이 상보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도덕관과 가치 제시 시급

그러한 가치와 도덕관의 제시는 인문학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즉 과학기술은 인류의 공존공영과 자연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후손을 위해 기술은 통제받고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윤리관이다. 이러한 윤리관을 세분하면, 과학기술문명의 역기능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과학적 진리와 과학기술의 근본적 의미의 재검토, 둘째, 목적과 수단 관계 재고, 셋째, 집단적인 지혜의 창출, 넷째, 도덕의 근원적 토대로서 타자와의 공존, 이타주의 원칙의 실천 토양 구축을 제도화 하는 일이다.

“윤리와 과학의 상보와 합의된 비전 제시가 과제이다. 즉 과학기술은 가치와 도덕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윤리적 정초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에는 반드시 과학적인 사실의 파악과 더불어 인문적인 직감과 비판이 상보적으로 요청되는 것”



기관의 실험실에서 개발된 군사용 기술들이었다면, 21세기 GNR 기술들은 명백히 상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예외없이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상업주의가 기술을 부리는 이 시대에 테크놀로지는 알짜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의 마술적인 발명품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인류는 현재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그 속의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쟁압력 내에서 이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제시하는 약속들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와 과학의 상보와 합의된 비전 제시가 과제이다. 즉 과학기술은 가치와 도덕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윤리적 정초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

인공지능 제작과 관련 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침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IBM, MS 등 5개 IT 기업들은 거의 마술적인 발명품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인류는 현재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그 속의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쟁압력 내에서 이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제시하는 약속들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는 13일 'Ethically Aligned Design'이란 제목의 문서를 발표

했다. 136쪽의 이 문서는 인공지능 제작에 앞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네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책임, 투명성, 교육이다. AI 제작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교육은 로봇이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해야 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연대하여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한 적합한 윤리를 개발하고 자본 축적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인간들에게 적합한 윤리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연의 도덕적 지위

급속도로 발전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더 극적이다. 인간은 생명공학 기술의 힘을 통해 완벽해지려는 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기야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밝은 전망과 어두운 우려를 동시에 안겨준다고 말한다. 밝은 전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어두운 우려는 우리의 유전적 특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생명윤리를 둘러싼 다양한 도덕적 난제들을 제시하면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재생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촉구한다.

이 문제와 씨름하려면, 현대사회에서 거의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자연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이 세계에서 인류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스티븐 호킹은 앞으로 100년 이내 인류가 멸망하거나 우주 진출을 예측하고, 에릭 닐트는 2050년 전염병으로 인류 문명 몰락을 예측했다. 즉 2300년경 인구가 1,000억에 이르고, 온실효과로 동식물 75%가 멸망하게 된다고 보았다. 유사 이래 인간의 자율적 욕망 통제 역할은 인문학의 주요 역할이었으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적절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적인 전통의 붕괴, 가치관의 침식, 위기사회에 대두 등에 대한 대안이 나 통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생태위기와 인류대재앙'을 안고 사는 인류의 미래행복을 위해서는 자연관의 변화와 인문학적 통제와 가치관의 정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계와 인간의 미래와 현실 및 특히 GNR의 유익성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적 인식 및 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확산과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유사 이래 인류 3,000여 년 역사가 지리적, 인식적 경계를 넓히기 위한 외명성장에 치중하고 그 결실을 얻어 왔다면, 이제 21세기는 내면까지 중시로 그 관점을 전환시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근대성에 토대를 둔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가 부정되고 인공지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상대적이며 불확실한 다원적 가능성들이 미래로 향하여 열려 있는 21세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남가주 방문 후기

최근에 방문한 LA 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북동부의 위축해 보이는 거리와는 달리 거리에는 optimism 이 넘치고 있었다. 2월 3일 남가주 동창회의 제 43대 강신용 회장이 취임하는 연례 총회를 앞 무려 여러 동문들, 특히 미주동창회 전임 회장님들, 남가주 지부의 전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장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관심사는 미주 동창회의 장래였다.

축사에서 "매 2년마다 이사를 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주 동창회는 매달 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여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걱정되는 일들이 미주 동창회에는 존재한다.

첫째는 매달 회보 발행으로 항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데, 동창회의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동창회의 장래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그점들을 축사에서 언급하고, 장



왼쪽부터 시계방향: 성주경 남가주 직전회장, 이병준 미주동창회 제3대 회장, MRS. 이병준, 백옥자 국장, MRS 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박선우 (음대 13), 현 USC 대학원생.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건진(문리 62), MRS 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오희호 제7대 미주 동창회장, 김영 (수의 63), MRS 김영

어서 좀 늦게 라도 참석하여 그동안 그리웠던 분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 총회 전날인 2월 2일은 남가주의 성주경 회장 전회 회장 김병연, 차기회장 강신용, 차차기회장 한귀희, 신임 총무 최용준 등을 만났는데 한결 같이 따뜻한 형제 자매의 우의를 느끼게 하

여 주었다. 2월 4일에 뵈운 이병준 제 3대 미주 동창님은 퇴역 공군단장 한국 공군의 군 사력에 박식하셨다. 현재 한국공군 전투비행기 조종사는 4,300을 넘는데 그들이나 초정 방문했던 공군 사관 학교에서 본 사관생도의 국가관, 애국심은 지금의 어수선한 한



제11대 미주동창임원. 왼쪽부터 (총장생략)-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지인수 전 회보 주필, 박석훈, 성주경, 김재영, 김은종 제11대 미주동창회장, MRS 김은종, 오른쪽 앞: 김병연, 노영호, 김호석, 이경희.

차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 평의원 회의에서 기금 육성을 결의했었고, 그것이 곧 "관악 후원회 종신이사회비" (*주)를 토대로 한 백년 대계를 위한 "SNUAUSA CENTURY FOUNDATION"이라고 설명했던 바 그 자리에서 차종환(사대 54), 강신용(사대 74) 두분이 종신 이사회비 3,000불씩을 기증하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목표액인 3백 만불이 언제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없이 10년, 2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동창회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로 숙고할 과제는 우리의 영원한 축소인 동창회관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역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역시 재정이 빈약한 미주 동창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가주의 여러 동문들도 이 과제를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공통 의견은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Investment and Return의 형식으로 되어야만 하며 구입한 건물에서 수입이 있어서 경

영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결국 이말은 동문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Rental Income으로 건물 운영을 하고, 남은 이익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대 장학회관"도 이런 식으로 550억원을 모을 수가 있었다 한다. 동창회관은 동창회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록 보관, 관리가 더 편리 할 수 있을 뿐더러, 동창회보까지 발행할 수가 있다면 회장단이 바뀔때마다 갖게 되는 5, 6개월간의 Learning Curve를 피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다.

2월 1일 저녁 오랜만에 뵈운 오희호 회장님(미주 제7대 동창회장)께서는 기금설립이나 동창회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 crazy Person"이 필요하다는 농담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여 주셨고 그 당시에 오희호장님을 보랏동안 생각하여 왔고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공통 의견은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Investment and Return의 형식으로 되어야만 하며 구입한 건물에서 수입이 있어서 경



2박 3일 신세를 진 박중수 박사님 댁 앞에서.

국의 정국을 바로 잡는데 주력이 될 것이라 말할 하셨다. 함께 참석했던 성주경 남가주 전임 동창회장은 "미주 동창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지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여야 하며, 원로 선배님을 공경하고 후배들을 포용하여 장기계획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조언을 하였다. *주: 관악 후원회비 일시금 3,000 불을 내면 그 기록이 영원히 미주 동창회에 보존되고, 연례 평의원 회의에서는 참석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평의원 이 된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편집부>



조지아 지부 동창회

2018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동창회 조지아 지부(회장 주지영)는 지난 2018년 2월11일 저녁 돌루스 KTN Ballroom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문과 동문 가족 등 모두 68명이 참석했다. 주지영 회장은 신년인사에 이어 2017년의 사업을 돌아보고 2018년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조지아 지부 동창회의 사업들-네 번의 정기 모임(총회, 봄·가을 야유회, 송년회), 월 골프모임, 장학기금 모금, 주소록 책자 제작, 세미나 프로그램 등-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지아 지부 자체적으로 장학위원회를 결성하여 골프대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 점이 가장 소중한 성과였다.

2018년에도 네 번의 정기 모임, 월 골프모임, 2차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세미나 프로그램들(주중광)이 계획되어 있고, 동문 전체 여행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영진 재무의 2017년 결산 보고와 2018년 예산안 발표가 이루어진 후, 두 개의 안건-동창회비 인상안, 이사회 구성안-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투표를 통해 원래 100불이었던 동문회비를 150불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인 후원금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문회의 활동도 더 여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사회 구성안은 부결되었다. 토론이 끝난 후 스코틀랜드 전통의상 차림의 안토니 맥(Anthony Mack)이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를 선보였다. 백파이프의 역사와 연주법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생생한 백파이프 소리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장에 서 듣는 백파이프 소리는 녹음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고, 마치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서 미지의 짐승이 신비롭고 웅혼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듯했다.

식사 후 장학금 수여식에서, 네 명의 동문 가족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 1천불씩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장한웅(Freed-Hardeman Univ.), 정재훈(UGA), 니콜 심(Barnard College), 이정민(UGA)이 장학금을 수상했고, 장학금 후원에는 제일은행, 강창석, 공영식, 임한웅, 유상봉, 박민, 사성주, 심정필, 신한은행, 백낙영(메트로시티뱅크), 이경훈(서울국제여행사), 주중광, 김무영, 이종석, 임수암, 임종원, 이주경, 이윤영이 참여했다.



김상진 (정치 49) 동문 강연



장학금 수여식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애플랜타 조선일보 주필로 활동하는 김상진 동문(정치 49)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한국전쟁 체험자로서,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민족의 저력을 목격한 그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타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강연이 끝난 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어느새 밤은 깊었고,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은 교가를 함께 부르며 진지하면서도 화목했던 모임을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최재경(국문 90)]

워싱턴 DC 동창회 규정 잔치



워싱턴 지역 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30까지 우레 속에서 규정 잔치로 모였다. 오랜만에 선배들과 함께 떡국과 빈대떡, 약식, 모듬 떡 등의 설날 음식을 나누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엔 젊은 후배들이 디저트 테이블에 준비된 커피를 타서 선배님들에게 드리며 인사를 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흐뭇했다. 역시 우리 한민족의 얼이 담긴 후배들의 선배님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고유의 설모임을 의미있게 느낄 수 있었다.

식사하시는 동안, 서울대 총동창회의 '만만기부'를 소개하고, 총동창회에서 보내주시는 동창회 회보와 함께 모교 백지도 나눠드렸다. 또 뉴욕에서 이곳으로 이사는 후 처음 저희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김현정(조소 94)과 2000학번 이후의 젊은 동문들이 앞자리에 나와 선배님들에게 소개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선배님들은 젊은 후배들을 반기기 위해 주시고 덕담도 해주시는 모습들로 선배님들의 정을 나눴다.

참석자들 중 제일 윗 선배님은 방은호(약대



43), 제일 어린 후배는 박문경(사회 07)이었다. 서울대학교 71년 역사 중 64년에 해당되는 동문들이 함께한 모임이니 정말 대단하다. 더불어 올해의 규정잔치에는 2000학번 이후 후배들의 참석으로 더욱 더 젊어지는 동창회가 되길 기대한다.

식사 후, 제기차기 놀이를 하며 잠시나마 아득하던 어릴 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오후에 눈이 오기 시작하여 준비했던 놀이를 미루고 일찍 마무리했다.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에게 서툰(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총동창회 회장, 본 동창회 이사(동문은 의과대학 동창회 2018년

달력을 기증하시고, 강수일 (본 동창회 이사)동문은 꽃다발을 기증해주셨다. [기사제공: 안선미 회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남가주 의대 동창회 총회 및 신년회

"남가주 서울 의대 동창 2018년도 총회가 1월 27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동문 및 게스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습니다. 최근 도미하는 의대 졸업생들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타주에서 은퇴하고 오시는 동문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남가주 의대 동창회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로는 같은 장소에서 8월 26일 토요일에 선후배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차 캘리포니아로 오시는 동문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회장 정균희, 총무 안우성, 재무 백지희]



워싱턴 주 동창회 1, 2월 SNU 포럼 개최



워싱턴주 서울대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하는 1월, 2월 SNU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1월 SNU 포럼에 평소보다 많은 40여명 참석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시애틀지역 한인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뉴캐슬도서관에서 개최한 올해 첫 SNU 포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으로 매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운영하는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 근무하고 있는 최중현 박사이다. 최 박사는 이날 '인공지능 연구현황과 시각인식 능력(Artificial Intelligence for Visual Recogniti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궁금증을 앞다퉈 진지한 질문을 했고 열띤 토론으로 유익했고 재미난 포럼이었다고 김재훈 회장은 전했다.

이날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 분야,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역사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본론으로는 최근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Machine Learning 방법론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공지능분야 전반 특히 이날의 주제인 '영상인식'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최 박사는 소개했다. 포럼 후반부에서는 인공지능이 미래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의 기회도 있었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의 여러 연구분야 중 하나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에 대해서는 3월 SNU 포럼에서 다루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대학(UW) 의대와 프레드허친슨 암센터 등에서 백혈병 등을 연구하며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우장희 박사는 지난 10일 2월 SNU 포럼에 강사로 나와 암 발병 원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정리해줬다.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했지만 암의 원인을 놓고는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후천적 환경 요인인지 등을 놓고 현재도 명확한 대답은 없다.

우 박사는 "살아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매일 매일 암이 생기지만 정상적인 경우 사멸하게 되지만 운이 나쁘게 암세포를 만드는 유전물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해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로 유전자 변이가 될 경우 악성종양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 월남전쟁 당시 고엽제 노출이나 방사선 피폭, 흡연 등이 암 발병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다른 많은 환경적이거나 후생적인 요인이 곧바로 암발병으로 이어졌다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일관성 쌍둥이가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쌍둥이가 똑 같은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닌 점은 유전적인 요인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후두암이나 자궁경부암의 경우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암이 우리 몸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 연구에서 80세 이후 자연사한 남자를 검사한 결과 80% 이상에서 전립선 암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도 있다.

- 2018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2월 - 우장희 박사 (UW/FHCR): 노화가 혈액암 발병에의 영향: 유전자 변이의 관점에서 (Current Perspectives in Age-related Blood Cancer)
 - ▶ 3월 - 김동찬 연구원 (Amazon): 아마존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현황과 실제응용사례 (e.g., Amazon Alexa, Amazon Go, Amazon Kiva)
- ▶ 4월 - 강윤희 박사 (국민대 교수/UW 교환교수): 구 소련 연방 코카서스 3국 (Georgia, Armenia, and Azerbaijan)의 현재와 미래
 - ▶ 5월 - 장영태 박사 (전 홍익대 총장): 독일과 독일 문화에 대해서?
 - ▶ 6월 - 정재현 박사 (UW 기계공학과): 나노 센서의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7월 - 박기용 교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현대 영화산업의 첨단 영상제작기술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허예량 박사 (Juniglobal.com): LTE and Beyond: Focusing on 5G Cellular Technology
 - ▶ 10월 - TBD 양진규 박사 (UW 항공공학과): 무인 비행체 드론 (Drone)의 개발현황과 응용분야?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총강 파티 장소) - TBD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뉴욕 약대 동문회 신년 축하 동문의 밤

뉴욕 약대 동문회(회장: 금영천, 이사장: 배상규)는 지난 2월 24일 뉴욕시 후러싱에 소재한 대동연회장에서 2018년 신년 축하 동문의 밤을 개최하였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3개 주를 아우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사는 약대 동문들이 부부 동반으로 60여 명이 모인 이번 모임에는 1950년에 입학한 윤정옥 동문이 최고령으로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금영천(72년 입학) 회장은 지난 40여 년간 물심양면으로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윤정옥 동문께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윤 동문은 뉴욕 총동창회 19대 회장(1997-1998)을 역임하였고, 뉴욕 골든클럽의 창립 멤버로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노령화되어가는 약대동문회가 타 동문회에 비해 아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모교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동문 각자의 노력 덕분이라고 인사말에서 피력한 금영천 회장은 동문회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전임 이사장 김창수(64년 입학) 동문과 전임 회장 손진태(67년 입학) 동문께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번 모임에는 뉴욕 총동문회 회장 이대영(문리대 64년 입학) 동문, 뉴욕 골든 클럽 회장 손경택(농대 57년 입학) 동문, 뉴욕 한인 약사회 김성현 회장과 오 제임스 부회장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하여 약대 동문회의 밤을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 이대영 회장은 뉴욕 총동문회의 발전에 약대 동문



전임 회장 손진태(67년 입학) 동문께 공로패 증정

회의 역할이 크다고 치하하였다.

송재한(61년 입학) 동문의 사회와 배상규(61년 입학) 이사장의 건배로 시작한 유희 시간에는 서울 음대 뉴욕 동문 회원으로 구성된 남성중창단(리더 한경진 <02년 입학, 바리톤>, 노영한 <09년, 테너>, 장주훈 <09년, 테너>, 최종원 <08년, 베이스>, 김태원 <10년, 테너>, 김혜연 <08년, 피아노>)이 축가를 맡아 격조 높은 5중창 공연을 하였다.



윤정옥 동문께 감사패 증정



전임 이사장 김창수(64년 입학) 동문께 공로패 증정



서울 음대 뉴욕 동문 남성중창단 5중창 공연

그리고 이날 파티에는 여러 동문들과 배우자들이 동문회의 단체 여행과 각종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를 가지고 송재한 동문이 제작한 영상물을 감상하였고, 박양명과 그의 약단의 연주에 맞추어 댄스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으로 흥겨운 유희의 시간을 가지며, 밤늦도록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기사 제공: 김창수 논설위원]
[사진 제공: 손갑수 동문]

까지 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원대를 돌파한 게임이다.

김정주 동문은 엔씨소프트와 게임업계 양대산맥을 이루는 넥슨의 창업주다. 모교 재학 시절부터 게임에 관심이 많았던 김 동문은 1996년 넥슨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내놓아 히트시켰다. 이후에도 뛰어난 사업수완을 발휘해 '메이플스토리', '카트라 이더', '던전앤파이터' 등 히트 게임을 줄줄이 내놓았다. 김택진 동문과 김정주 동문은 한때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한술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파트너 관계를 정리한 상태다.

김정주 김택진 동문의 성공에는 '천재 게임 개발자'로 불리는 송재경 동문이 있었다. 절친인 김정주 동문과 "모교 캠퍼스에 앉아서 '우리로 빌게이츠처럼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던 송 동문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김 동문을 다시 만나 넥슨을 공동 창업하고 '바람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후 김택진 동문과 의기투합해 '리니지'를 만들어 또다시 한국 게임사에 큰 족적을 남긴다. 2003년 엑스엘게임즈를 창립해 게임 개발과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포털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김범수 동문과 네이버의 이해진 동문이 양대산맥을 이룬다. 두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삼성 SDS 입사

동기가 됐다. 김범수 동문은 퇴사 후 '한계 임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고 당구와 고스톱, 바둑 등을 온라인 게임으로 서비스하면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다. 이해진 동문은 1999년 삼성 SDS 사내 벤처기업 '네이버'를 설립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 인터넷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두 동문은 게임과 인터넷의 결합이 시너지를 내리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2000년 한게임과 네이버가 이합병으로 탄생한 NHN은 이들의 생각대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터넷 중흥기에 손을 맞잡았던 두 동문은 스마트폰 시대에 다시 경쟁자의 길을 걷고 있다. NHN을 나온 김범수 동문은 모바일 메신저의 대세를 내다보고 2010년 카카오톡을 만들었다. 이해진 동문은 2011년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을 내놓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 스마트폰 메신저 1위를 차지, 동남아와 남미 등에서도 선전 중이다. 그밖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과 실생활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 각축 중이다.

이들 동문 간 선의의 경쟁은 미래 신기술 분야로 계속 이어진다. 최근 김범수 김정주 이해진 동문이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총동창회보 박수진 기자]

한국 IT 1세대 중심에는 '공대 85·86'이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김정주 NXC 대표,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20여 년 웹·모바일 시장 주도 네이버·카카오·엔씨 리더로

IT 벤처업계에는 오래전부터 '황금학번'으로 불리는 학번이 있다. 모교 공대 85·86학번이다. 김택진(전자공학 85-89)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산업공학 86-90) 카카오이사회 의장, 김정주(컴퓨터공학 86-91) NXC 대표, 송재경(컴퓨터공학 86-90) 엑스엘게임즈 대표, 이해진(컴퓨터공학 86-90) 전 네이버이사회 의장 등이 주로 거론된다.

80년대 PC 초창기에 대한 시절을 보낸 이들 동문은 90년대 나란히 청년 창업가로 변신, 인터넷과 게임 산업을 일구며 IT 1세대 주역이 됐다. 이후 20년간 IT업계를 주도하며

동기와 선후배에서 때로는 동료, 때로는 라이벌로 변화무쌍하지만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택진·김정주·송재경 동문은 게임 업계에서 신화를 썼다. 가장 선배인 김택진 동문은 모교 동아리 '서울대 컴퓨터 연구회' 출신이다. 이 동아리에서 훗날 한글과컴퓨터를 창립한 이찬진(기계공학 84-89) 동문, 김형집(전기공학 86-90)·이희상(전기공학 89-93)·우원식(대어계측공학 87-91) 동문과 함께 국원 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을 개발했다. 최초의 인터넷 기반 PC 통신 '아미넷'을 선보이기도 했던 그는 1997년 엔씨소프트를 창립하고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대박을 터뜨렸다. 게임 한류의 시초이자 현재

동문 문단

봄 시 - 8 <SPRING POEM - 8>



이희만 (간호 70)

팡팡 터져나오는 것이
꽃들의 폭소 만이 아니다
이 찬란한 봄에는

이 곳 저 곳 햇살 가 닿은 곳마다
봉우리 터져 웃음 쏟아내고
살랑살랑 바람 일렁이는 자리마다
연두빛 새 순 밀고 나오는 목숨, 목숨들

이 황홀! 을
봄의 오케스트라를
무수한 꽃들의 잔치를

보며 만지며 느끼며
여릿여릿 돌아나는 새 생명들
아, 목숨들의 향연
살아있음의 몸짓

That which burst out *bang bang*
Is not only the floral burst of laughter
In this brilliant spring

Everywhere touched by sun
Buds burst out and pour out laughter
Every place blown by wind
Life pushes out as green buds

Seeing, touching, feeling
This rapture! And
The spring's orchestra and
The feast of countless flowers

New lives sprout tenderly
Ah, the banquet of lives
The movement of life

꽃들의 혁명 <Revolution of Flowers>

If I part my lips slightly
And push out a trembling sound,
Still a word comes distantly,
Rising with longing: Revolution!

Someone once wrote
"All human each in his own place
are in a revolution,"
which sparked something within me,
then I heard a reverberating phrase:
flowers each in its own place
are also in the middle of
a revolution

In the cruelly cold winter
Wind, the world of which only
They dreamt

While burning the undying spark,
We walk upon the spread-out world,
Build nests and live

Flowers cry out revolution with their entire
Bodies and bloom blazingly in midday,
Forsythias in yellow
Magnolias in deep amethyst
Lilacs in lavender

Wisterias wrapped around
The backyard fir, blooming at the end of
each branch,
The shout of violet wisteria
Their love,
Their ideology,
This summer day,
I seem to hear them exclaiming



오봉완 (법대 55)

유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금년은 선배가 참석했던 3.1 운동이 일어 난지 99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배가 순교하신지 15년 후에 태어난 이 후배도 벌써 80이 넘었으나,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선배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인지
보통때도 관순 선배가 자주 생각납니다.

분단되어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의 장래를 우려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순교하신 선배의 힘을 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화, 천안, 이라는 아름다운 충청도 소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의 이화 학당에 유학 갔다가
3.1 운동이 터지자, 폐교되어, 하향했으나
관순 선배는 고향에서 조국 독립 만세 운동을 조직하고 압장 섰습니다.

어려운 17세의 소녀로서, 온 동네와 산산 곡곡의 고향의 선민을 이끌다가
투옥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자백하고 사과 하라는 일본제국 경찰의 협박을 거절하고
끝 끝내 버티다가 순교한 유관순 선배...
우리나라의 잔 다르크...

선배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노인이 된 후배의 마음이 애절하도록 아름답습니다.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유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Dr. Bonnie Oh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Georgetown University

<작가 노트>

어디선가 따스한 봄 바람이 불어온다. 강추위에 시달렸던 탓인지 가까이 찾아온 봄이 새삼 반갑다. 옛 사람은 살구꽃이 반쯤 피어날 때 봄기운이 무르녹아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다감하게 한다고 읊조리며 멀리 있는 친구를 다정하게 고택으로 초청하였다. 내가 다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랴? 봄 오는 거리를 함께 걷던 선배 시인이 톱, 한마디를 던진다. 인생은 모이고 흩어짐이 무상한 일이고, 오늘은 모였지만 내일은 또한 각자 어떤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는 예측불허함으로 던지는 한마디일 것이다.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우린 아쉽게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을 맞이한다. 냉혹한 추위 속에서 얼음장 밀로도, 부지런히 봄을 준비한 자연은 어느날 우리에게 제비가 날아오르고, 꽃들이 팡, 팡, 꽃잎을 터뜨리며 잔치

를 벌이는 봄 소식을 전해준다. 매일 아침 지나다니던 길 가, 벗 나무에도 가지마다 연하디 연한 연두빛 이슬 같은 것들이 맺혀 있다. 호수는 가까이 없어도 버들나무과인 듯 물기를 유난히 담아내나 보다. 혹은, 시름으로 얼었던 가슴들도 깊이 두레박을 내려 연한 연두빛 물기를 건져 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올해의 남은 달들은 성실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채워가야 할 터인데... 봄 그리고 꽃과 연관된 시 두편을 지면에 올려 오랫동안 세상과 소통의 길을 열었다. (이희만)

<시인 약력>

시대문학 문단 데뷔(1990), 시집 [섬과 섬으로 만나, [물]의 은유법] 외 편저 다수. <뉴욕 포에트리> 한영 시집 편저. 한국여성 문학인 회원. UPLI & CCC MEMBER.

뒷 뜰 전나무 휘감고 가지 끝마다 피어난 등나무꽃
The shout of violet wisteria
Their love,
Their ideology,
This summer day,
I seem to hear them exclaiming



박성현 (공대 64)

조선말기 위정척사(衛正斥邪) 운동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1. 조선 말기의 정치 상황과 서양 과학 기술 도입의 실패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실학연구로 인하여 잠시 르네상스 시대가 왔으나, 양반 계급층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 사고와 부국강병(富國強兵) 정책을 거부하는 유림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여 국력은 더욱 쇠퇴하여 갔다. 부국강병을 거부하는 유림들의 사고방식은 대국인 중국(당시 청)에 기대어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애써가며 군대를 키우고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부 유림은 도리어 강병으로 가는 길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26대 조선의 임금으로 1863년에 12세에 등극한 고종(1863~1907)은 너무 어린 관계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국제적 시각에 어두운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프랑스 함대에 의한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 천주교를 박해한 병인사옥(丙寅邪獄, 1866), 미국 함대에 의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등은,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 도입을 배척한 고립정책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조선 사회가 서양 과학기술 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강력한 화력을 동반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과 같이 서양 세력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발전된 무기와 빠른 증기선에 놀랐고, 조선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취약성을 알고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무기와 군제를 서양수준으로 전환시킬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과학기술 수준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양 근대 무기 제작은 전통 무기 제작 방식의 일부 개량이나 전환만으로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서양 무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근대 기초과학과 더불어 제련, 제철 및 제강, 선반 및 프레스와 같은 공업 기술의 총체였기에 무기 제작기술 자체가 바로 서양 근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나, 쇄국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한 고종 초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西學)

을 경계 하라는 사대부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에는 큰 걸림돌이었다. 결국 조선 말기에 정치에 억압당한 과학 기술 정책으로 조선이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길을 스스로 막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종 초기에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 1867)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 가는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명치유신은 일본이 700년간 내려오던 덕천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명치왕(明治王)에 의한 왕정복고를 이루어 유신통치(維新統治)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유신이란 혁신적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일본은 이 당시 학제와 징병제를 혁신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서구 열강 근대 국가를 모델로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성립되었고, 사회적으로 근대화 화가 추진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말기에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대조되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조선 말기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 도입으로 부국강병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10년(1973년)에 흥선대원군이 세도를 마감하고, 고종과 황후 민비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화정책을 펼쳤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개화 반대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위정척사는 그 당시 정학(正學)인 성리학(성리)과 정도(正道)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위정),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척사)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는 정치세력을 위정척사파라고 불렀다.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운동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서 시작되었으나, 위정척사파들은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고, 앞서가고 있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외면 할 뿐, 미래를 내다보는 조선의 올바른 외교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선은 이 당시 전통적 유교의 사농공상 사고, 부국강병 거부, 쇄국정책, 위정척사 운동 등은 근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군사력의 증강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국력은 피폐되었고, 조선은 결국 근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열강들의 침략 목표

가 되었고, 결국에는 일제에 합병되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맞게 되었다.

2. 위정척사 운동과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유사성

위정척사파 활동이 있은 후 1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정책이 위정척사파의 이념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19세기 위정척사파는 성리학 중심의 이상주의적 정신 위위 관념론이었다. 이들은 농본(農本) 사회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과학기술력을 경시하면서 정신력만 단단하면 외세의 침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 정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좌파는 현실 논리보다는 이상주의적 분배 중심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위정척사파는 부국강병을 거부하면서 왕도(王道) 정치만 실현하면 국민이 잘살고 국가가 견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좌파는 국가의 경제성장보다는 노동 중심의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이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정척사파는 서양 강국들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무시하고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는 쇄국 정책으로 이어지고, 중국 의존도가 컸다. 좌파도 글로벌 트렌드에 관심이 없고 국내 논리를 우선하면서 과거의 적폐정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좌파는 미국 주도 질서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한반도 내부의 민족 공동체에 관심이 크고, 중국에 호의를 나타내고 있다.

위정척사파는 사농공상 관념에 집착하면서 일방적인 하향식 선비계층의 성리학 기본의 정치를 중시하고, 기술이나 장사꾼을 천대했다. 좌파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고, 전문가보다는 비록 비전문가들이지만 좌파 이념에 충실한 관리들에 의하여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 말기와 현재는 140여년의 간격이 있지만 돌아가는 정치상황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위정척사파는 외국 오랑캐 세력에 맞서 순수한 우국충정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활동했었다. 오늘날 좌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진실한 것으로 믿는다. 다만 부국강병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잘사는 길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한강의 기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좌파가 스스로의 편협한 이념에 갇혀 굳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조선말기의 위정척사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도 한반도는 조선 말기 시대와 똑같이 일본, 중국, 러시아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 한반도에 남북이 분단되어

싸우고 있고,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조선 말기 위정척사 운동과 이론적으로 유사하게 한반도 내부에 갇힌 민족주의, 군사력 증대를 외면하는 부국강병 거부, 사농공상 관리 위주의 일방 하향식 정책, 중국에 의존하는 대륙정책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과 거리를 둘려는 정책은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강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진흥, 부국강병, 미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결집력, 미국과 유럽 등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서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등을 통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나가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역사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만남의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40년 이상 대한민국이 쌓아온 원전의 세계적 기술을 사장시키고 퇴보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에 에너지 안보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우매한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장려정책은 장려할 일이다. 원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핵잠수함이나 핵미사일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뿌리부터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원전을 없애 버릴 것이 아니라, 원전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이 현명하다. 나라는 과학기술로 무장한 국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독립국가로서 떳떳이 살 수 있으며,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이슈들을 안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갈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북핵 위협, 실업률 상승, 성장 둔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 국민, 기업, 과학기술계 등의 모든 국가의 구성요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장정책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얻어진 파이를 균형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소득이 증대되게 해야만 궁극적인 국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혁신성장은 앞에서 끌고 나가는 성장이고, 소득주

김수영(사대 57) 동문

제14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대상 수상



김수영 동문이 제14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해외동포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2월 15일, LA 엔젤스프라자에서 열린 제14회 해외동포문학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김수영 작가는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과 시집 '바람아 구름아 달아' 등을 펴내며 70세인 노년에 등단하여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문단 활동을 통해 문학애와 문학정신으로 모범적 삶을 살아가는 작가로 작품집과 진심한 작가 생활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현해온 그의 문학세계가 높이 평가돼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정홍택(상대 61) 동문

제45회 문학미디어 신인 문학상 수상



정홍택 (상대 61)

정홍택 동문이 서울의 <문학 미디어>라는 계간 문학지가 주관하는 제 45회 문학미디어 문학상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정홍택 동문은 동화 부문에 응모하여 당선되었다. 신인상 선정 이유로 "삶의 가치를 모든 자연에 대한 애정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작가가 그리는 좋은 생각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주제를 끝맺음에서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라고 말했다. 문학 미디어는 국제 Pen Club 회원이기도 한 한국에서 권위있는 문학지이다.

도성장은 배분을 통하여 뒷마리리를 잘 해 나가는 성장이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볼 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



이홍빈 (의대 57)

"Hello, I've Overstay'd the 'Welcome'"

I feel and I hear my heart's murmurin' As if yet so young though I've overstay'd the welcome

Lookin' back the golden glow I realise I've overstay'd The sweet lovely a welcome

Feelin' in me in my lambent glow I realise I've remembered The beatin' then of my heart

Singin' all the way though alone I feel the young heart As if it's of a young man's

Growin' stiff and slow Feelin' loose and fragile Functionin' little and less

As if poundin' young Yearmin' yet the love Romantic a longin' for

Havin' thru the years Been obliged for I did enjoy The lovely warm a welcome

Rememberin' the whole year That I hear the love Murmurin' in my heart

Callin' yet for the love Sittin' yet at throbbin' a golden sunset Beyond yet the overstay welcomed though some amiss all the more

Growin' stiffer and slower Feelin' loose and fragile Functionin' little and least

As if poundin' young Rememberin' yet the love in me Romantic a longin' in my glow.

이원영 (사회 81) 동문

'올바름'에 관한 생각의 편린들, '진맥세상' 출간



미주 중앙일보 논설실장인 이원영(사회 81) 동문이 미주 중앙일보 오피니언 란에 써온 칼럼 '진맥세상'이 책으로 나왔다. 책의 표지를 보면 발간 취지가 읽힌다. '자연건강 전문가 이원영 기자(한의학 박사) 언론 30년/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위한 작지만 단단한 단상들이란 부제가 눈에 띈다.

이번에 펴낸 책에는 모두 112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내 몸 독립선언과 건강 주권, 2부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3부 역사사지 남북화해의 길이다.

이 동문은 다음과 같이 발간 취지를 밝혔다. "글의 소재는 개인, 사회,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 장르는 하나의 지향점 '올바름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모아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올바름에 대한 생각, 한의학을 공부하고 자연건강 분야에 천착하면서 느꼈던 의료와 건강에 대한 올바름, 북한 취재를 계기로 경험한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름에 관한 생각의 편린들을 붙잡아 글을 썼습니다." 이 동문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기(氣)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한의대까지 다녔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자연치유 분야로 공부의 범위를 넓혀 건강 칼럼을 집필하고, 여러 군데서 건강 강연 요청도 받고 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미래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이

를 창조하는 지혜로운 계획과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한림원 원장



김지영 (사대 69)

388시 914분: 하품을 하다. 하품도 내게는 아픔이다. 삶을 너무 과식했다 보다. 배탈이 날 것 같다. 해탈도 내게는 배탈이다. 과식이-장경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부분)

배탈이 난 사람은 다급, 절실하다. 그런 아픔을 느껴야 자유의 길을 찾는다. 부처님이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four noble truths) 중 첫 번째가 괴로움, 고(苦, suffering)다. 괴로움을 배탈처럼 느끼기 전에는 해탈은 없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코프는 반역죄로 10년형을 받고 시베리아 노동수용소에서 8년째 복역 중이다. 2차대전 중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3일 만에 탈출, 돌아온 것이 비밀이 되었다. 형기가 끝난다고 석방될 가망도 별로 없다.

알렉산더 솔제니친(1918-2008)의 1959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작가는 구 소련 시절 대표적 반체제 지식인.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소설화한 것이다. 그는 이 소설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해탈은 배탈이다

새벽, 손가락 두 개만큼 두꺼운 얼음이 창문에 달려있다. 모범수 슈코프는 몸살기가 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한다. 추위 속에 하루 종일.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얼어 붙는 시

“쾌락의 순간은 지나간다. 항상 있는 것은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도,

구하는 것을 얻는 것도 고(苦). 그렇게 느껴야... ”

멘트를 녹여가며 벽돌을 쌓는 일. 그는 꼼꼼히 정성을 들여 반듯하게 벽을 만든다. 최고의 기술자라고 칭찬도 받고, 저녁에는 건더기가 듬뿍 든 죽을 두 그릇이나 먹는 행운도 얻는다.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쥘는 행재도 한다. 물레 가지고 들어오며 경비병에게 걸릴 뻔 했지만, 무사 통과.

잠자리에 들면서 슈코프는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인생 오케이. "구름 한 점 없던 하루 끝, 행복하다고 할 만한 날이다." 슈코프의 독백.

시인 장경린은 슈코프에게 인생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의 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23시 45분에 시작하여 999시 999분에 끝난다. 98시 421분, 슈코프는 확신에 대해 회의를 한다. "확신이 날 찾아 왔다. 나는 그를 달래서 돌려보낸다. 다시는 날 찾지 마라 알겠니?"

소설 속의 슈코프는 예쁘지만 터무니 없는 확신을 했던 사람이다. "달은 매달 태어나

고 죽는다. 죽은 달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별을 만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탈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시인은 슈코프에게 삶에 대한 의심을 심어 준다.

388시 914분, 시인은 슈코프에게 하품이라는 아픔을 준다. 해탈의 기미. 아련한 아픔

은 구체적인 배탈로 이어진다. 삶의 과식이 원인이다. 이쯤해서 슈코프는 그의 존재에 탈이 났고, 그 탈은 탐(貪)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인식한다. 부처님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 괴로움(苦)과 괴로움의 원인(集)에 대한 알아알이.

그러나 슈코프에게 아직 배탈난 자의 절박함이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滅)이 생기지 않았고, 벗어나는 길(道)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성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괴로움을 절박하게 느껴야 한다. 시인이 덤으로 준 긴 시간 안에 슈코프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에게 주어진 수용소의 날, 3653일, 그리고 그 이후 셀 수 없는 날들, 그는 그렇게 정처없이 헤매 것이다. 그것이 운이다.

성난 코끼리에 쫓기던 사람이 깊은 우물을 발견한다. 마침 굶은 등나무 넝쿨이 우물 속으로 뻗어 있다. 덩굴을 잡고 우물 속에 숨는다. 바닷물 보니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다. 위를 보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덩굴을 갉아 먹는다. 그런데 위쪽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그 상황에서 그는 혀로 꿀을 받아 먹으며 인생이 달콤하다고 느낀다.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우화.

슈코프의 행복이 그런 달콤함이다. 쾌락의 순간은 지나간다. 항상 있는 것은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도, 구하는 것을 얻는 것도 고(苦). 그렇게 느껴야 해탈을 찾는다.



이원영 (사회 81)

[진맥 세상]

한국 '미투'의 역사적 의미

요즘을 한국에서는 소위 '잘난 인물'들 중에 두 발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이들이 많으리라. 이리다가 나도 한방에 '혹' 가는 건 아닐까, 만약에 터진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머릿속이 무척이나 복잡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평생 쌓은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사태를 매일 접하고 있으니 말이다.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의 '미투(Me Too)' 운동 탓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 운동이 응원하고 공감한다는 '위드유(With You)' 메시지와 함께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다.

여검사 서지현씨의 용기 있는 폭로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이미 검찰 내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수면 위로 올렸고, 땡땡거리던 가해 당사자는 한국땅에서 더 이상 얼굴 내놓고 살아가기 어려운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성폭력 피해 폭로로 문화공연계, 대학가, 종교계의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부인, 속속 기관 및 회사의 입막음, 송방방이식 처벌, 피해자에 대한 왕따 및 무고 소송, 피해자 퇴직, 가해자의 재등장,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이어져왔다.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했지만 피해자만 고통을 안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전 정말 달라졌다. 웬만한 이슈는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여론싸움을 벌이는

게 일상인 한국에서 미투운동처럼 거의 전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건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건이다. 누군가가 말했듯 한국의 미투운동은 일시적인 '폭로 이벤트'의 수준을 넘어 한국 인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며칠 전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은 결과 88.6%가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73.1%가 미투운동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답했고, 한국사회에 성폭력 문화가 심

“누군가가 말했듯 한국의 미투운동은 일시적인 '폭로 이벤트'의 수준을 넘어 한국 인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4%에 달해 이 문제가 전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성폭력은 권력이나 상관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응답이 96%에 달해 사람관계를 수평이 아닌 갑을수직관계로 설정하는 한국적 문화가 성폭력 발생의 토양임을 보여줬다.

미투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잘못된 관행을 이참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결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는 바뀌어진 정치적 토양도 한몫하고 있

다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각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미투운동이 지금과 같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소속 의원들의 온갖 성추문으로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미투운동의 동력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의 미투운동은 비뚤어진 남성우월적 성문화를 바로잡는 또 하나의 적폐청산 작업의 하나다.

한국의 미투운동이 또 하나의 냄비근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권력상하 관계를 약화해 마치 그것이 특권인 양 여성을 성적 희롱물로 삼아온 수많은 남성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미투운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접하고 설득 끝에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를 스튜디오에 불러내 인터뷰를 진행했던 JTBC의 '혹'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한낱 검찰 내 잡음으로 끝났을 지, 미투운동이 한참 연기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유명 인물이 한 방에 '혹' 가도 동정심이 안가는 요즘이다.

미주중앙일보 논설실장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ime \ Date	6월 15일 (금요일)	6월 16일 (토요일)	6월 17일 (일요일)		
오전	7:00 - 8:30	등록 접수	조찬		
	8:30 - 9:00		환송 조찬		
	9:00 - 12:00		일반회원 참관 가능 의사결정 투표는 평의원만 가능		
오후	12:00 - 1:00	평의원 회의	보스톤 역사관광 혹은 메인 여행 (참가신청 회원에 한하여; 경비는 개인 부담)		
	1:00 - 2:00			점심식사	
	2:00 - 3:00			회의 속개 / 일반회원 참관 가능, 의사결정 투표는 평의원만 가능	
	3:00 - 4:00			자유시간	
	4:00 - 5:00	만찬	환영사/ 총동창회 회장상 수여		
	5:00 - 6:00			휴식	
	6:00 - 6:30			환영사/ 임원 소개/ 미주동창회 회장상 및 NE 동창회 장학금 수여	
	6:30 - 7:00			주중광 교수 특강	
	7:00 - 7:30			저녁 식사	식사
	7:30 - 8:00				
8:00 - 8:30	지부 회장 모임	음악회 및 친목			
8:30 - 9:00					
9:00 - 9:30					
9:30 -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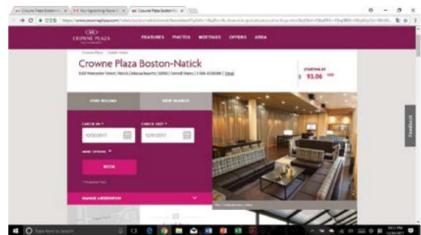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7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 17일 (일)
장소: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el: 1-508-653-8800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8년 5월 15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5.00 plus tax/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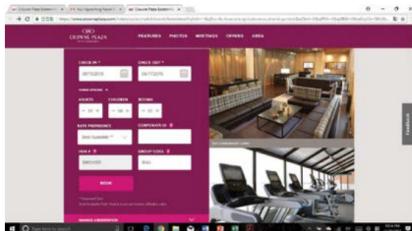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Reservations Department (800-265-0339)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예약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https://www.crowneplaza.com/redirect?path=hd&brandCode=CP&localeCode=en®ionCode=1&hotelCode=BOSNKK&PMID=99801505&GPC=SNU&viewfull-site=true>)



(날짜 입력 전 화면 캡처)

예약 사이트에서 평의원 회의를 위해 머무르실 날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group code: SNU로 입력된 예약사이트

로 이동하며 나머지 게스트 정보 등을 입력하고 예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날짜 입력 후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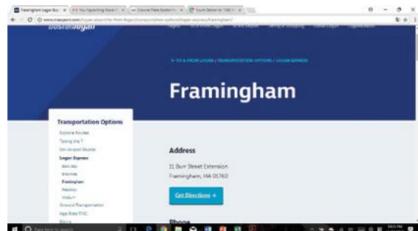
특별 할인 가격 (\$135.00 plus tax/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14일 - 18일) 동안만 적용됩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Boston Logan Airport에 도착 후 공항 버스나 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 1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Framingham 방향으로 가는 Logan Express bus service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다섯 방향의 다른 운행루트가 있으니 반드시 Framingham으로 가는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버스는 주중에 매 30분마다 운행하고 있으며 운임은 성인 왕복 \$22 (65세 이상 \$20)입니다. Framingham bus terminal에서 호텔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이며 호텔에서 Shuttle를 운행합니다. 도착해서 Crowne Plaza Boston-Natick로 전화 (1-508-653-8800)를 하시기 바랍니다. Logan Express bu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이미지 참조) (<http://www.massport.com/logan-airport/to-from-logan/transportation-options/logan-express/framingham/>)
- 2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3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Logan Express bus 관련 화면 캡처)

3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기차 교통편 안내

Amtrak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Boston South Station에 도착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0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호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평의원 회의 관련 문의는
다음의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매년 9월 추석 때가 되면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축하 퍼레이드를 한다. 예쁜 꽃차를 타고 등장하는 김진형 동문은 애국심이 담긴 큰 꿈을 이룬 작은 거인이다. 손을 흔드는 모습은 그가 만든 지난 50년의 LA 한인 정착 역사를 필름처럼 떠올리게 한다.

***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동기**

김진형 동문: 보통 이민을 생각할 때 본인의 삶의 향상과 자녀를 교육을 첫째로 생각한다. 1968년 관광공사 총재 비서로서 주재원으로 파견 출장 오면서, 그 당시 한국식당도 없고 일본타운에 투숙하며 한인타운 상점이 없음을 보고 일본타운의 일본 간판과 중국타운 한문간판의 형성을 보면서, 또한 너무 외로워 자살하는 교포를 보면서 이다음 "내가 이민을 온다면 제2의 한국타운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드디어1968년 9월 28일 유학을 결심하고 Pepperdine University 종교학 전공으로 학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정착했다.

*** 한인 타운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 및 퍼레이드의 발전 상황**

2세를 위해 이민 온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1세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서점을 열었다. 그 서점에서 영어 교육용 책을 주로 많이 구비하여 실비로 제공하였다. 서점을 열자마자 1971년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시작하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한글 간판을 달면 매장도 올릴 수 있다고 권고하며 직접 붓글씨로 써서 간판을 달아 주니 매장도 많이 올랐고 한인들이 그 가게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다.

한인을 위한 한국 종합의료원 유치, 한국문화가 살아 숨 쉬는 코리아 타운 형성, 영어를 배우기 위한 칼 스테이트 LA. Extension Course 유치, 코리아 타운 업소 이용 캠페인, 코리아 타운 번영회의 모범업소 시상식을 추진했다.

혼자서 외치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많았다. 코리아타운 번영회(Korea Town Development Asso.)라는 단체를 만들어, LA 시 정부 정치인과 코리아 타운 8가에 파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정치인을 만나면서 코리아타운 지역을 Olympic에서 8th와 Western에서 Vermont으로 하고 David Cunningham LA 시 10지구 시의원이 설계를 David Hyun 설계사에게 의뢰했다. 그 당시 비싼 설계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타운 지역을 우선 설정하고 한인들의 밀집을 호소했다. 그 방안으로 1974년 11월 3일 첫 '한국의 날' 축제를 열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과연 한인들이 참여하여 호응할 것인가? 시간이 되어 오자 3천명 정도의 한인 관중 예상을 훨씬 넘은 3만 명의 한인 관중이 모여들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코리아 타운이라는 제2의 한국이 만들어질 감각에 서로 눈을 흘리며 국기를 흔들었다. 1976년 코리안



추석 때, LA 코리아타운 축하 퍼레이드에서 꽃차를 타고 등장하는 김진형 동문



2014년 Dr. Gene Kim Square 표지판을 올림픽 가에 세우다



퍼레이드 3회째부터 John Turny 연방 상원의원이 오픈카 참석 정치인으로 참여가 시작되었다.

해가 갈수록 공원도 확보하고 그리고 44년동안 이어져 온 퍼레이드가 화려해졌다 장터, 장기자랑, Beach Korean Festival, Jr.

Miss Korea 대회, 미국 행진대, 고적대, 도자기 만들기, 인조 꽃 만들기, 무용, 태권도 시범, 한글학교 어린이 동참, 특설무대 등 여러가지 이벤트를 만들었다.

*** 코리아 타운을 발전시키면서 어려웠던 일**

LA 코리아 타운을 만든 김진형 (문리대 55) 동문



그 당시 한인회가 있었다. 넓은 땅을 사서 한인타운을 Beverly Hills 동네에 세울 것을 제안하며, 왜 흑인지역인 곳에 코리아타운을 만들려고 하느냐? 면서 반대했다. 지금도 없었다. 영사관 관계자도 따라 다니며 조사하고 언론계에서도 한인들이 얼마나 호응하겠느냐? 며 한국 망신 시킨다고 여기저기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

*** 미국 정부가 수여한 포상**

- David Cunningham 시의원, Tom Bradley LA 38대 시장, Mervyn Dymally 연방의원, Kenneth Hahn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John Ferraro LA 시 시의원, Nate Helden LA 시 10지구 시의원, Yvonne Burke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Herb Wesson LA 시 시의원 이들의 도움은 너무 값진 보상이라 생각한다.
- 1981년 코리아타운 파출소 오픈하고 1986년에는 제브 이로스야브스키 시의원 재정위원장 부탁 파출소 통역관 월급 시의원에서 지급
- 1984년 아드모어 주민의 기념 만찬에 성금제공과 지난 21년 동안 계속 지원으로 인한 LA 시 공원국 감사패
- 1993년 7월 LA 시와 LA 카운티 커미셔너로 선서
- 1993년 LA 경찰국 커미셔너로 선서
- 2013년 LA 신연성 총영사 감사장
- 2013년 김진형 박사 광장 동이안
- 2014년 Dr. Gene Kim Square 표지판을 올림픽 가에 세우다

*** 현재의 한인타운의 발전을 소개하면**

1972년부터 코리아 타운이 발전하여 1932년 LA Olympic 이름을 따서 올림픽가로 이름을 지었고, 오늘날의 한인타운은 초기의 한인타운 구역을 중심으로 월서가의 빌딩은 경제의 중심부가 되면서 거의 한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대형 마켓과 백화점으로 한인타운 지역은 광범위하게 동서로 넓혀지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간판에 영어를 첨부시켜 외국인을 동참시킬 때라고 생각된다.

- 올림픽가 횡단보도에 파고다와 무궁화가 그려진 문양 새겨짐
- 6가 한국식 도보거리로 조성
- 코리아타운 안내지도 제작
-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의 꿈
- 코리아타운 개발 열풍
- 교통편리
- 한인들의 LA카운티 경제 공헌도 높음
- 주류사회의 관광형 소로 뜸
- 주상복합 및 호텔 건설 붐
- 한인 1.5세 단체 활동
- 데이빗 유 시의원 당선은 한인사회 새 역사의 시작
-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름을 딴 광장 모두 6곳(도산 안창호, 세미 리 박사 광장, 하기관 박사 광장, 장성균 회장 광장, 김진형 박사 광장, 양석규 이사장 광장, 한국문화회관 광장)
- 코리안 어메리칸 이름 딴 공립학교 3곳 (찰스 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 세미 리 초등학교)

학교), ● 6가 도산 안창호 우체국, ● 한국식 건물, ● 노인 커뮤니티센터, ● 웨스턴가의 월튼 극장 등

*** 주변의 인사들이 본 김진형 박사**

- 이기철 동문(법대) LA 총영사는 "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로 찬사
- herb J. Wesson Jr Councilmember "LA Koreatown and Korean Festival is dedicated to Dr. Gene Kim's American Dream. The book also commemorates the 4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spearheaded by Dr. Kim on December 3, 1972
- 함기선 한서대 총장 "희망의 계곡에서 금을 캔 이야기"
- 지미 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 "한인축제의 어제와 오늘을 보는 귀한 기록
- 김기선, 미국정부한인커미셔너협회 회장 "코리아타운 역사 연구의 초석을 놓다"

*** 가족 관계 및 개인 사업**

자녀는 아들이 둘이며 우주과학자와 판사, 연방검사로 있다. 1933년 평양 출생이며, 서점, 음식점, 보석상을 개업했다. 일주일에 2번은 Golf 를 치며 소일하고 여러 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 서울대 동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노년의 부모님들과 같은 애절한 애국심이 조금 결여된 듯 보인다.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명예를 위하여 애쓰지만 어떻게 하



정중수 (인문 82)

1987년 나는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다. 1, 2 학기 모두 최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겨우 졸업이 가능한 형편이었고, 야학과 공장생활로 이어졌던 어슬픈 운동 언저리의 일에서도 복학을 전후해 발을 뻗 상황이었다.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모친이랑 단 둘이 살던 길음동 단칸방에서 학교까지 95분이 나 25분 버스를 타고 오갔다.

어느 날은 불쑥 스카극장 앞에서 내려 텅 빈 극장에서 조조 영화를 보기도 했다. 피터 위어 감독의 '위트니스'란 영화였는데 그때는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아마도 극장 간판에 그려져 있던 해리스 포드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문명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종교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아미시 교도의 마을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 속에 화면을 가득 채웠다. 형사 스릴러물의 외피는 뜻밖의 영화적 속살을 숨기고 있었고, 경찰 내부의 부패 세력에 쫓기는 형사 해리스 포드와 아미시 마을의 여인 캘리 맥길리스의 위태로운 감정은 당시 나의 지리지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던 밝고 평화로운 전원

면 나라를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심 보다는 옛말에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서로 인정하며, 나누며, 동참하며, 협동하며, 참여하는 정신을 짚어서부터 갖기를 바란다.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하다 보니 나도 서울대 동창회에 참여를 못했으니 지금 부티라도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며 서울대 동창회가 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

*** 겸손한 거인 김진형: 서울대인의 귀감**

기계체조로 단련한 건장한 몸과 서울대인의 자부심에서 오는 기세등등함이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룩한 성업에 밑받침이 되어 깊은 애국심과 함께 LA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를 일구었다. 그동안의 많은 심적 고통에서 지금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김진형 박사의 모습은 인터뷰 내내 온화해 보였다.

지난 50여 년간 자신의 안위 보다 LA Koreatown과 한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온 김진형(문리 55) 박사는 작은 체구이지만 틀림 없는 거인이다.

"김진형 박사는 두가지 역사를 만든 선구자로 1972년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만들고 코리안 퍼레이드를 창안해 오늘날의 축제 재단을 설립했다. 두가지 역사는 그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의 꿈은 2014년 9월 18일 올림픽가와 버먼트 코너에 DR Gene Kim Square가 만들어져 결실을 맺었다." (2018. 1. 12. 시사 저널)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87년의 기억

의 풍경과 함께 마음을 흔들었다. 영화가 끝난 뒤 극장 휴게실에서 혼자 모친이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먹고 나니 도저히 학교로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런 날들이었다.

연말에 장준환 감독이 만든 화제의 영화 '1987'을 보면서 계속 탄식과 함께 몸을 뒤척였던 것 같다. 일단 30년 전의 시간, 기억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폭력 장면을 건디기 힘들었다. 정말 지랄 같은 시절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불법 연행, 고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던 때였다.

1호선 남영역을 지나다 보면 나타나는 어두운 벽돌 건물.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고 했다. 1987년 1월 14일 그곳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 박종철 군이 숨졌다.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를 추궁하며 무자비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이 자행되었다.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부 질식이 최종 사인이었다.



오세경 (약대 61)

사랑은...

사랑은 빛깔과 모양이 없어도 아름다운 것
 사랑은 손짓이나 몸짓이 없어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것
 사랑은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것이어서
 죽음의 관문도 막지 못하는 것

만유의 인력이 항성을 운행하였다면
 인간의 사랑은 서로의 항로를 비추어 주었다.

먼 훗날, 이생을 마감할 때라도
 우리에게서 서로의 만남과 사랑이 있어
 한 많은 나의 인생도 축복이었다 하리니

잔혹한 죽음을 감내한 인자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였다 하더라.

경찰의 첫 발표는 그 유명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였다. 영화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한 세력과 진실을 밝혀 불의의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대립 구도 아래에서 굉장한 박진감과 속도감을 보여준다. 사태의 진행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치안본부 박처장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진실의 힘 앞에서 한발씩 퇴각하는 순간에는 조였던 몸이 풀어지며 작은 안도의 한숨이 찾아온다. 김윤석이 연기한 박



처장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모순이자 상처라 할 레드 콤플렉스, 극단적 반공주의의 화신이다. 그의 이복 사투리는 서북청년단 같은 역사적 기원을 환기하면서 좌경세력

한다. 김윤석은 이 모두를 눈빛과 손짓, 걸음 하나에 담아내면서 살아 있는 악으로 움직인다. 진실의 편에서는 뜻밖에도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의사, 기자, 학생, 재야 운동권, 종교계, 거리의 상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변화를 향해 움직여가는 모습이 화면에 담긴다. 교도관들의 숨은 헌신도 인상적이다. 언제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리라. 610 항쟁을 거쳐 백만 시민이 집결한 이한열 노제의 광경이 노래 '그날이 오면'과 함께 엔딩 크레딧에 올라올 때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눈가를 훔친 뒤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장르 영화에 버금가는 이 영화의 속도감과 카타르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도 있는 것 같다. 87년 체제라는 역사적 성과를 남겼지만 87년 6월 시민항쟁의 정치적 후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안다. 박처장 캐릭터에 과도하게 모인 악의 에너지는 좀더 현실적으로 배분되는 가운데 역사를 성찰하는 시선으로 전화될 수도 있었다.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좌절과 전망이 뒤섞인 혼돈과 무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아는 자의 시선을 선점하거나 하나의 악을 만드는 것은 질문을 단순화한다. 난 그해 명동과 시청의 열기 속에서 이상하게 힘들었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 힘겨움은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때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문학평론가강홍환사 대표

[출처: 동창회보]



정홍택 (상대 61)

어른을 위한 동화

파치의 모험

I
 ‘파치’라는 별명을 가진 아기 파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파리가 옆에 오기만 하면 어른 아이할 것 없이 모두 슬슬 피합니다. 골치가 아파진대요. 워낙 호기심이 많아 이것 저것 눈에 띄는대로, 생각나는대로, 아무에게나 마구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리’의 첫자인 ‘파’자와 ‘골’자의 끝자 ‘치’를 합해서 ‘파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파치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늙은 개 ‘워리’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집 주인 아저씨는 워리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들은 아주 싫어했죠. 심심하면 파리채를 들고 두리번거립니다.앗저녁에 파치 엄마는 그 파리채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파치는 아주 많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천장 구석에 늘어붙어 밤새도록 울고만 있었어요. 아침 해가 뜨자 주인 아저씨는 워리의 밥을 그릇을 채워 마루에 놓고 갔습니다. 워리는 여니 때 처럼 파치를 볼 뵈죠.

“파치야, 내려와 밥 먹자”
 워리는 천장에 대고 킁킁 짓으며 파치를 불렀어요.
 “나 안 먹을래요. 배 안고파요”
 저 위 천장에서 파치가 말했습니다.

“이 밥 내가 다 먹는다.”
 “맘대로 하세요.”
 파치는 막 무가내입니다.

“안 먹음 이 담부터 너랑 얘기 안해. 우린 친구도 아냐.”

이 말에 파치는 절끔했어요. 워리 아저씨마저 친구가 돼 주지 않는다면 파치는 정말 외톨박이가 되거든요. 모두 골치가 아프다고 슬슬 피하지만 엄마하고 워리는 언제나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파치는 세상에 나온지 열흘밖에 안됐어요. 아직도 슬픈 날을 더 살아야하는데 친구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아야.

“알았어요 아저씨. 지금 내려 갈게요.”

마지못해 파치는 천장에서 부웅 날아 워리 밥통에 살짝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 파치와 워리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파치는 먹는 방법이 워리와 아주 달라요. 파리는 원래 입이 없어요. 입이 있을 자리에 길다란 대롱이 나와있고 이 대롱으로 끈적끈적한 침을 밥에 토해 놓지요. 그 침에 음식

이 섞아 물같이 되면 대롱으로 쭈욱 빨아서 먹죠. 파치는 배가 똥똥해 지도록 먹었어요. 이제부터 안 먹고도 세 밤은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먹고나니 파치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워리 아저씨.”

워리는 ‘이 애가 또 시작하는군.’ 생각하며 파치를 내려다 봅니다.
 “왜 주인은 워리 아저씨에겐 밥을 주고 우리 파리들은 죽이나요?”
 “어, 그런...”

“왜 주인은 워리 아저씨에겐 밥을 주고 우리 파리들은 죽이나요?”



어려운 질문에 워리 아저씨는 잠시 대답을 생각했어요.

“그건 말이야. 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거든. 집도 지켜주고 위험할 땐 내가 죽더라도 주인을 구해내지. 내가 젊었을 때 말야...”

워리가 신이 나서 자기 무용담을 시작하자 파치는 재빨리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백 번도 더 들었거든요.

“우리 파리는 좋은 일을 안하나요?”
 “글쎄. 별로 생각이 나지를 않는구나.”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것 있을 꺼예요.”
 “그게 뭘까? 생각나면 말해보렴.”

“아침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 사람들 얼굴에 날아가 키스해 주며 깨워주거든요.”

“사람들은 키스를 좋아하지만 너희들 키스는 싫어한단다.”
 “왜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병을 옮겨 주기 때문이지. 가령 콜레라 같은 병은 사람을 죽이기

도 하거든.”
 “그럼 안 옮겨 주면 될 것 아녜요?”
 “그럴 수가 없지. 네 다리를 보렴.”

파치가 앞 다리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다리의 뽀뽀한 털 사이에 아주 조그만 병균들이 우글우글 붙어 있잖아요. 다리를 비벼도 보고 흔들어도 보았습니다. 균들은 더욱 단단히 꼭꼭 붙습니다.

“그 보라. 안 떨어지지? 그게 문제야.”
 워리 아저씨는 안됐다는 얼굴로 파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러자 파치는 화가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저 꿀같이 돼지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나요? 먹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안하잖아요?”

이 물음에 워리 아저씨도 바로 대답을 못하고 공공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답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킁킁하고 짓으며 말했습니다.

“저 돼지는 말이다. 그래 그래. 이제 생각났다. 죽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죽으면 좋

없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없어지면 다 좋아할텐데!”

눈물이 파치의 두 뺨을 흘러내립니다. 파치는 무슨 결심을 한 듯 입을 꼭 다물고 공중으로 부웅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잠깐 서 있다가 저기 문 있는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전속력으로 날아갑니다.

‘저 문에 온 몸으로 광 부딪히면 난 끝장이겠지. 그럼 엄마있는데로 갈 수 있을거야.’

“파치야. 파치야. 안돼! 그럼 안돼!”

워리는 밑에서 킁킁 짓으며 날아가는 파치를 급히 따라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인이 무슨 볼일이 있었던지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눈을 꼭 감고 문을 향해 내뿜던 파치는 주인이 문에는 바람에 부딪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곧 바로 문이 닫혀서 워리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안타깝게 킁킁거리며 문만 긁어대고 있었어요.

“아야, 밝아. 너무 밝아. 눈이 빠지는 것 같아.”

밖으로 튀어나오자 밝은 햇빛 때문에 파치는 정신을 잃은채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II

얼마가 지났을까..... 파치는 정신이 들며 눈을 떴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야”

그 곳은 조그만 연못가였어요. 한낮인가봐요. 사방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매미만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파치의 입과 목이 바짝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다가서서 물을 빨아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 물속에서 누가 파치를 뺨히 올려다 봅니다. 새까맣고 큰 눈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겁이 나서 달아나려고 두 날개를 펴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의 그 놈도 겁에 질린 얼굴로 날개를 펴니다.

“아, 이게 바로 나였구나!”

파치는 물에 비친 자기를 자세히 뜰어 보았습니다. 시꺼먼 몸, 뽀뽀한 털이며 아무리 보아도 예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앞발을 물 속에 넣어 발에 붙은 작은 균들을 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작은 놈들은 더 잘착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쓸데없는 놈들이로구나!”

파치의 얼굴에선 이제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나랑 같이 죽어버리자.”

하얀 구름 저 너머에는 엄마가 있겠지. 파치는 높이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햇님 있는데까지 날아가면 우린 타 죽겠지. 그럼 난 엄마를 만날 수가 있을꺼야. 눈을 감고 날아 올랐습니다.

“아얏!”
 머리에 무엇이 팽 부딪혔습니다. ‘하늘 끝인가보다.’ 파치는 몸을 돌려 발 끈근이로 그 하늘에 착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어요.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커다란 해바라기의 높이 달린 이파리였어요.

“잎이 높ियो 달렸네!”

파치는 이파리 위편으로 기어 올라가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무 것도 먹지않고 굶어죽자. 인젠 난 잡아먹혀도 겁나지 않아.’

서쪽 하늘에서 해가 누웠누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싸늘해 졌습니다. 풀벌레들이 하나 둘 나와서 각종 악기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들은 파치 귀를 스치며 하늘 멀리 날아져 갑니다. 이슬이 몸을 다 적셔도 상관이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먼동이 트고 햇님이 방긋 떠 올랐습니다. 해가 아침인사를 해도, 서산에 넘어가며 작별인사를 해도 모두 파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있지만 했어요.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오고 세번째 밤이 지나갑니다.

파치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날개는 축 쳐졌고 다리는 더 이상 몸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날개를 요 삼아 그 위에 누워서 엄마 얼굴을 떠 올립니다. 워리 아저씨의 걱정스런 얼굴도 보입니다. 김이 무럭무럭나는 밥통도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파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어버리자. 내가 없어지면 다 좋아 할 꺼야. 좋은 일 할 수 없는 난 살 필요가 없어.’

드디어 파치는 그 높은 해바라기 이파리 위에서 밑으로 몸을 내 던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쓰러져 있는 파치 옆으로 지렁이가 지나갑니다.

“이거 맛있는 먹이 같은데... 아이구 따귀워. 온통 몸에 까만 가시가 나있잖아!”

지렁이는 고개를 흔들며 제 갈길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미떼가 지나갑니다.

“애들이 아이 놈을 우리 굴로 가져갈까? 겨울 동안 잘 먹겠는데.”

일 개미 대장이 말했어요.

“안돼요. 대장님. 이놈을 가져가려면 우린 대문을 다시 크게 만들어 달아야 해요”

개미들도 그냥 갔습니다.

III

“붕-붕”

꿀벌이 날아 갑니다. 지나다가 저 아래 파치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가 보니 아주 못생긴 놈이긴 했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 보니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꿀벌은 파치의 길다란 입 대롱에 자기 입 대롱을 대고 꿀을 조금 밀어 넣어 주었어요. 달고 향기로운 꿀이 입 속에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니 파치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반쯤 뜨고 보니 거기 꿀벌이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파치가 아주 기운 없는 소리로 꿀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천사인가요? 여긴 천국인가요?”

“천사? 내가 천사나고? 하하하. 야, 이 놈 되게 웃기네. 살려줬더니..츄츄. 이거 미친 놈아냐. 암튼 난 간다. 잘 있거라!”

부웅 날아가려는 꿀벌을 파치는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냥 가심 안돼요.”
 “아저씨? 점점 이상한 소리만 하네. 아저씨라니, 내가? 생전 첨 들어보는 소리네. 넌 대체 몇 살이냐?”
 “세상에 나온지 열흘하고 사흘 지났으니 까 열세살요.”
 “그럼 나랑 동갑이네.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파치와 꿀벌은 친구가 되었어요. 파치는 또 물어보고 싶은 맘이 생깁니다.

“꿀벌아, 너는 좋은 일 하는 거 있냐?”
 “좋은 일? 나야 좋은 일 많이 하지. 꽃에서 꿀을 따다가 여왕님께 바치고 또 사람들에게 게도 나누어 주거든.”
 “꿀은 꽃에서 훔쳐 오는거니?”
 “아냐. 우린 꽃에게도 좋은 일을 한다네. 꽃은 우리에게 꿀을 주고 우린 꽃가루를 다리에 묻혀서 이 꽃 저 꽃에 옮겨 주거든. 그래야 꽃은 씨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야.”

파치는 또 슬퍼집니다. 꿀벌도 남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난 아무 것도 남에게 좋은 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살고 싶지않아. 잉 잉.”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파치는 말했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난 꿀벌은 파치를 위로해 해 주고 싶은 맘이 들었어요.

“그렇기가 없어. 우린 모두 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있거든. 우리 찾아보자. 네가 세상에 나온 이유도 꼭 있을거야.”

꿀벌은 하늘을 쳐다 봅니다. 한낮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나 저나 우선 먹어야지. 자! 나하고 같이 꽃밭에 가자. 꿀따는 벌과 꽃가루 나르는 일을 가르쳐 줄게.”

꿀벌이 부웅 날아 올랐습니다. 파치가 따라 가려고 하니 날개가 마음대로 흔들려 지지를 양아요. 사흘을 굶었거던요. 꿀벌은 돌아와 파치를 등에 업었어요. 광공대며 꿀벌은 아주 어렵게 날아올라 꽃밭을

향해 갑니다.

그 때였습니다. 파치의 머리에 뼈속 나와 있는 두개의 안테나에 아주 급한 위험 신호가 전해옵니다. 저 위 어디선가 파리 채가 날아오는 것 같은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까만 점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돌을 향해서 손살같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새까만 몸에 하얀 입부리를 째~악 벌리고.

“아, 안돼!”

꽤 소리지르며 파치는 여섯 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 꿀벌을 차 버렸습니다. 꿀벌이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순간, 까마귀는 ‘쉬익’소리 찬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어요. 채 파하지 못한 파치는 그만 꼬리를 까마귀의 입에 먹혔답니다. 까마귀는 다시 하늘로 치 솟았습니다.

“뿔. 뿔. 파리 동이잖아. 에이 더러워.”

까마귀는 공중에서 침을 탁탁 뱉으며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꿀벌을 잡아 먹으려다 파리의 동을 먹었잖아요 글쎄. 까마귀에게 밀을 떼어 먹힌 파치는 땅에 떨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에서 하얀 피가 흘러 나옵니다. 꿀벌이 파치에게로 달려 왔습니다. 파치는 뒤집어져서 힘없이 다리만 허우적 거리고 있었어요. 꿀벌은 입에서 밀납을 내서 파치의 밀을 막아 지혈을 시켜주고 다시 꿀을 먹여 주었습니다. 얼마 후 파치는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IV

이것이 ‘집파리’ 파치가 ‘꽃파리(Flower Fly)’가 된 이야기랍니다.

“꿀벌아, 나 아직 살아있는거니?”
 꿀벌은 파치 입에 계속 꿀을 넣어주며 대답해 주었어요.
 “그럼. 네가 날 살리려다가 이렇게 다쳤단다.”
 “내가 널 살려줬다고?”
 “그럼. 그럼. 넌 날 구해주고 대신 내가 죽을 뻔 했어. 많이 아프지?”
 “밀이 빠진 것같이 아프지만 괜찮아. 내가 좋은 일을 한거 맞지?”

그럼 꽃파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모두 파치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예요. 파치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답니다.”

---끝---

참 고 :
 (1) 꽃파리의 학명 : Eristalis tenax
 (2) 파리는 그 만한 크기의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보통 파리들은 일초에 두 날개를 400번 정도 펄떡이며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일초에 1,000번까지 흔들 수 있죠. 그 때는 시속 45mile까지 빨리 날립니다. 비록 잠시 짧은 거리 밖에 갈 수 없지만.

“군들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하하하.”

꿀벌은 깔깔 웃으며 다가와 파치의 손을

잡고 이야기 합니다.

“난 알야! 그 균들이 왜 없어졌는지. 햇님때 문이야. 햇님은 모든 균을 죽여주지. 너도 햇님 아래서 밝게 살면 그까짓 균 걱정할 필요가 없어!”

파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햇님 있는 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꿀벌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꽃에 가서 그 대롱 입으로는 꿀을 빨아 먹고 다리로는 꽃가루를 묻혀 이곳 저 곳 옮겨주며 좋은 일을 해 줄 수 있어. 이젠 깨끗하잖아!”

꽃밭에 도착하자 꿀벌은 꽃들에게 파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꽃이 말합니다.

“안녕. 파치야. 내 꿀을 마음껏 먹으렴.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녀 줘!”

나비도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 파치야. 우리 모두 같이 사이좋게 살자.”

그 날부터 파치는 꽃밭에 살며 꽃들과 꿀벌과 나비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꿀도 먹고 서로 도와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것이 ‘집파리’ 파치가 ‘꽃파리(Flower Fly)’가 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도 꽃밭에 가면 꽃파리를 만날 수 있어요. 꽃파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마 깜짝 놀랄꺼예요. 아주 예뻐졌거든요. 어느새 몸에는 꿀벌처럼 노란 황금 줄이 생겨났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남을 도와 주려는 착한 생각만 하기 때문인가봐요. 꽃파리를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파치를 아니?”

그럼 꽃파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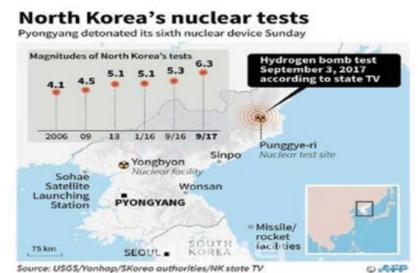
“그럼요. 우리는 모두 파치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예요. 파치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답니다.”

본 기고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김경욱(사회대) 동문이 지난 2017년 12월 3일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주최 평화통일 강연시 발표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자료다. 미주 동문에게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하기 위해 김 동문의 게재 허락을 받고 올린다. 김 동문은 현재 로도아일랜드 대학교에서 연수를 하고 있다. [편집자 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수준 및 전망

북한의 핵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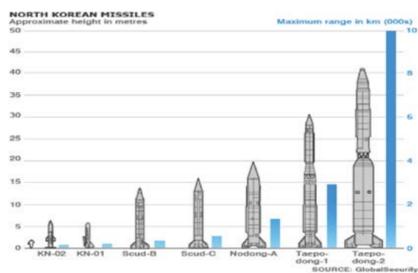
-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6회의 핵실험 감행으로 핵 위협 현실화
- 플루토늄은 50여 kg 정도 보유, 핵개발 경과 고려시 6kg 이하로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 도달
-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중,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평가
- 핵무기 소형화는 기존 핵개발 국가의 소형화 달성 기간(2~7년) 고려시 상당한 수준
- 현재 핵실험장(풍계리) 준비상태 고려시, 추가 핵 실험도 가능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수준 및 전망

북한의 미사일 위협

- 김정은 집권 기간(약 5년) 총 51회, 86발 시험 발사 (16년 24발, 17년 16발)
- 김정일 전체 집권 기간(약 18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 (16발)의 5배 이상
- 단거리-ICBM급 탄도미사일 1000여 발 이상 보유
- '14년 이후 SLBM/고래급(2000t) 잠수함 개발, '16년 무수단 8회, '17년 SLBM 기반 고체 추진 탄도 미사일(2, 12), 스커드-ER 4발(3, 6), 화성-15형(11, 29, 최고 고도 4,500 km, 거리 960 km) 등
- 향후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탄두 재진입 및 중량 유도기술 검증, 신형 엔진 개발 등을 통해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가속화 예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

한미동맹과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우리 대응 전략의 기본 개념

"한미 동맹의 능력과 우리 軍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총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

- (한미 동맹 능력) '맞춤형 억제 전략(TDS)'과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4D 작전개념)'을 토대로 한미 연합 억제·대응능력과 태세 강화
- (독자능력)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구축하여 우리 軍의 독자적 억제·대응 능력 확충

한미 연합 억제·대응 태세 강화

-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전략
- 미국이 양자 동맹 5개국 (韓日濠泰比)중 최초로 수립한 北 핵미사일 대비 전략
- 현재 주기적인 정책 협의(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연 1회), 연합 연습(KR/FE, UFG) 등을 통해 실행력 구비 중
- 이전보다 강화된 美 확장 억제 공약을 대내외에 천명 (제48차 SCM 공동성명, '16. 10. 20)
- 향후, 美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와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이행 체계 강화 노력을 집중
- 美전략 자산 한반도/인근 전개배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전략적 대책 추진 중



- '4D작전 개념'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하기 위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수행 개념
- 현재까지, 제46차 SCM('14년)에서 '4D작전 개념'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D 이행 지침' 완성('16년)
- 한미 동맹의 의사 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훈련, 능력 발전 등 5대 분야 구체화
- 향후, '4D 이행 지침'을 토대로 작전 계획 발전, 연합 연습시행 등 한미 미사일 능력태세 발전에 역량을 집중

- 탐지: 정보감시정찰(SR) 자산 운용으로 적자산 식별, 교란·파괴방어 지원
- 교란: 北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 시설(지원 시설 등) 타격
- 파괴: 北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를 직접 타격
- 방어: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 오는 北 탄도미사일 요격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 개념



- 국방부 정신전력 문화정책 과장 김경욱 서기관
- 울산학성고, 서울대 지리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수료
- 행정고시 47회
- 국방부 인사기획관, 교육 정책관, 계획 예산관, 시설 기획관,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등 근무
- 현재 University of Rhode Island, Rhode Island Transportation Research Center 근무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구축

- Kill Chain 및 KAMD에 KMPR 개념을 추가하여 우리 軍의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제고
- Kill Chain과 KAMD는 '거부적 억제, KMPR은 '보복적 억제' 효과 달성에 기여

1축: Kill Chain



- 1축, '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 및 핵심 고정 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
- 현재 북한지역에 대해 제한된 감시타격 능력을 구비 * 탄도순항미사일(현무 등), 공대지 유도 폭탄-미사일 (JDAM, 일부 타우러스) 등
- 향후 북한 전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 제고 추진 중 * 軍 정찰 위성,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타우러스 (추가) 등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목표탐지기 유도 전자장치, 탱크부 전력장치, 터보제트 엔진

- 제조사: 타우러스시스템스 (독일-스웨덴 합체)
- 군 실전배치: 2016년 12월
- 속도: 마하 0.95
- 최대 사거리: 500km
- 고도: 30-40m 초저고도
- 정확도: 1m 이내
- 스텔스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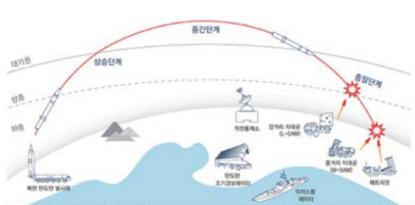
F-15K 전투기에 장착 발사 (동해 또는 대진 인근에서 북 우수단과 미사일 기지를 15분 이내 정밀 타격, 파괴)

타격 성능: 관통-침투·폭발 이용탄두로 최대 6m 콘크리트 건물 후 목표물 파괴

서울 상공 또는 NLL, MCL 이남에서 북 전역 핵심시설 및 주요 기지 타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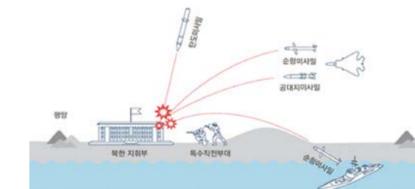
2축: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2축, '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쪽으로 날아 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 미사일로요격하는 체계
- 현재 수도권 및 비행기 등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방어 능력을 보유 *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패트리엇 등
- 향후 북한 전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핵심 시설 요격 능력 향상 *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4, 패트리엇 및 M-SAM 성능 개량, L-SAM 연구 개발 등



3축: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 3축,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적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반복하는 체계
- 현재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능력으로도 북한 도발시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 가능
-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 체계 및 대응용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 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 보복 능력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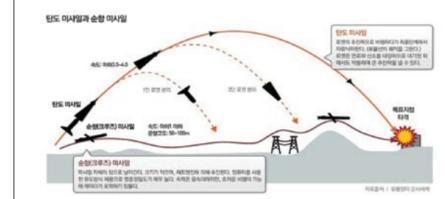
남북한 미사일 현황

남북한 미사일 최대사거리 비교 (단위: km)

종류	거리 (km)
현무-1(탄도미사일)	180
현무-2(탄도미사일)	300
현무-3(순항미사일)	500
현무-3ER(순항미사일)	1000
현무-3C(순항미사일)	1500
KN-01 · KN-02	123
스커드B	300
스커드C	500
노동1호	1300
대포동1호(탄도미사일)	2500~4000
대포동2호(탄도미사일)	6700

현무-3C 제원

직경	53~60cm	길이	6m
무게	1.5t	속도	마하1 (약 1224km/h)



남북 미사일전력 비교

종류	북한	남한
탄도미사일	스커드 (300~500km), 노동 (1300km), 무수단 (3500km 이상), KN-08 (8000km 이상), 북극성 (500km 이상, 잠수함 발사)	현무-1 (180km), 현무-2 (500km), 현무-3 (1500km, 지상-구축함-잠수함 발사), 태우러스 (500km, F-15K 발사)
순항미사일	없음	현무-3 (1500km, 지상-구축함-잠수함 발사)
미사일 요격	없음	PAC-2 (300km), THAAD (40~150km), M-SAM (15km, 개발 중), L-SAM (50km, 개발 중)
공식 통계	없음	총량 1000여발 이상

결론

- 현재 국방부는 새로운 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
- 임전필승의 강군 육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을 지키는 군의 사명을 다할 것임
-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 하고, 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2018 장학생 모집 공고

Announcement of Scholarship Applic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SNUAA-USA)가 미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문들의 학구열과 지도자 자질을 증진, 격려하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관심있는 동문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장학회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 공동위원장 김용구

응모 자격
모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이수한 후 미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문

제출 서류

- 지원서, Application Form (Download at www.snuaa.org)
- 서울대학교 학위 이수 증명, Proof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 현 미국대학 재학 증명 및 성적 증명, Proof of Current Enrollment and Transcript
- 2명 이상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2 or more)
- 자기소개서, Essay (500 단어 이내)

응모 방법

- 지원 서류를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4월 30일까지 아래 미주동창회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application)
- 동창회 주소: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모든 구비서류에 지원자의 이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문들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2018년 6월 16일 보스톤에서 열리는 제27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회의에서 수여합니다.



가발과 함께 걸어난 나의 86년 인생

(Part 8)

이준행 (공대 48)

<지난 호 계속>

언제부턴가 우리 뷰티 업계에는 신용을 가버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소매점에, 소매점들은 도매업체에게 약속한 신용을 지켜야 한다. 80평생을 살아보니 신용은 성공의 보중 수표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용을 쌓아야 한다. 아무리 인상이 좋고, 말을 잘하며 유능하고 재미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아이디어가 샘처럼 솟아나도 신용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신뢰와 신용,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등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1980년대의 미국은 레이건의 시대였다. 영화배우에서 대통령이 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초기 경제 계획은 실패해 1982년에는 실업률이 10%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1983년과 1984년에 다행히 회복되어 실업률이 7.2%까지 떨어졌다. 또, GDP 성장률은 3.3%로 높아져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5%이하였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니, 레이건은 '미국의 아침이 왔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은 붐을 이루었고, 자동차 산업은 활력을 되찾았으며, 소비자들의 소비는 새로운 정점을 이루었다.

경제가 안정되니 한인사회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80년 센서스 3,794명에 불과했던 쿼츠 7선거구 인구가 10년 사이 1만7,79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때문에 그곳이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로 자리를 잡았다. 그때부터 무역업체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이곳에 많았다. 주로, 의류, 가발, 주얼리, 액세서리 등을 취급했다.

또한 한인대상 비즈니스도 1980년대에 서점을 시작으로 하여 식당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가 번창하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다.

당시, 뷰티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행했던 스타일은 제리컬이었다. 코리아나 전 병직 사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에 온통 제리컬 물결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히트 제품이었다. 나도 제리컬 가발을 판매했다. 주춤하던 뷰티업계 경기가 살아났고 흑인 소비자들도 돈을 잘 썼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같은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몸이 계속 아팠던 관계로 운동을 부지런히 했다. 덕분에 내 가족들도 나를 따라서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만 했다. 세아들과 집사람까지 데리고 새벽마다 조깅을 했다. 회사에서는 온화했던 나였지만 집안에서는 호랑이같은 아버지였기에 아들들은 꼼짝을 못하고 칭얼거리며 나를 따라 운동을 해야했다. 특히 막내는 울면서 따라오기 일쑤였다.

그렇게 올보로 자란 막내 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홍콩에 위치해 있던 제이피모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늘 곁에 두고 있다 타국으로 멀리 떠나보내니 소식이 궁금해 전화를 했다.

"막내나, 아버지다."
"아버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잠깐 얘기할 것이 있단다."
"아~아버지 나중에 전화할게요."
"무슨 말버릇이나? 이 녀석이 타국에 나가더니 버릇이 없어졌구나"

화가 난 나는 당장 집에 돌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나의 큰소리에 기가 죽은 막내는 "네 아버지."라며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홍콩에서 뉴욕 집까지의 먼거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나? 어디 아버지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느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네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가"
"네. 아버지."

홍콩에서 날아온 막내 아들은 웃도 같아 입지 못한채 내 앞에 무릎 꿇고 40분 동안 혼계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혼계가 끝난 뒤 곧바로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런 내 모습을 본 가족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말리지를 못했다. 익히 내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혼이 나고 돌아가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효성스런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나면 홍콩에서 아버지의 부름에 일손을 내려놓고 한걸음에 달려온 기특한 녀석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60주년 회헌례에서 바친 순정의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한지 60년. 내 아내 이세영을 만나 함께 길을 걸어온지 벌써 60년이나 되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질문하지만 사실, 나는 내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많다.

사업과 건강의 시련,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던 나의 부인.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지친적이 많았을 텐데 나에게 아무런 내색도 안하며 조용히 가정을 꾸려가며 강직하게 나를 내조해 왔기에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끝

나비들이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귀족도 평민을 찍찍대는 경우가 많지만 나비의 세계에서는 노랑나비는 호랑나비 옆에도 못 가고 대왕나비는 여왕나비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나비는 알→애벌레→번데기→ 성충의 4단계를 거쳐 탄생하며 보기 흉한 유충으로 나비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부화해서 화려한 성충으로 지내는 시간은 몇 주도 되지 않는다.

이다. 대개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차차 위로 올라가면 사어나 할 때 정도의 온도까지 맞출 수가 있다. 유유상종이라고

라보니 마치 올챙이들이 바글대는 것 같았다.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우리 동기들이 하나같이 올챙이 배를 하고 있었다. 간

릴 것 같지 않아서 적당히 눈요기를 하고 왔다. 그들도 비키니 차림으로 산속에 들어왔을 때는 "날 좀 보소"라는 속셈이 깔려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간 아레날 화산 유원지는 1968년 대폭발을 해서 서쪽에 있는 세 마을을 잿더미로 덮어 버렸다. 정부에서는 복구공사 대신 하구에 댐을 막아 커다란 인공호수를 만들어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정경을 창출해냈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물러드는 관광객 덕분에 땅값이 치솟아 다 부자들이 되었다고 한다. 이 동쪽 마을의 이름이 <La fortuna>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행운의 땅>이란 이름이 1968년 화산이 폭발하기 전부터 있었다고 우긴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화산이 터져 마치 복권이 터진 것 같이 행운을 갖다 주었다라는 뜻이라면 그 이름을 <El fortuna>: 복 받은 자의 땅>이라고 했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긴, 남의 비극을 듣고 자신이 올라섰다는 점은 아무래도 껄림직한 감이 없지 않았으리라. 화산이 터졌을 때 바람의 방향이 동서의 운명을 바꿔 놓았나니 사람 팔자가 다 새옹지마에다 전회위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실 우리는 한치의 앞날도 볼 수 없는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



넓은 웅덩이에 동양인이 들어가면 서양인들이 자리를 피해줘서 우리 일행들만 10여 명이 모여 희희낙락하는 장면을 멀리서 바

혹다가 눈에 띄는 팔등신의 미녀들은 캐나다나 북구 쪽에서 온 체슬들인 모양인데 여기서는 좀 쳐다봐도 성희롱 죄로 걸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심완섭 (의대 67)	1,800								
47,347.11 (11/29)	나눔									
6,511.97	김창화 (미대 65)	25	지부 분담금	뉴욕	3,000	강에드 (사대 60)	200	북텍사스	필라델피아	
총동창회 보조금	황선희 (공대 74)	100	뉴욕	550	김명철 (공대 60)	200	최중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3,000	모교발전기금		알라스카	2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태환 (법대 48)	2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권기현 (사대 53)	1,000	워싱턴주	600	박두선 (공대 68)	100	샌디에고		김현영 (수의 58)	100
3,000	유재환 (상대 67)	125	캐롤라이나	200	박상원 (문리 54)	40	김군빈 (법대 56)	75	배성호 (의대 65)	100
업소록 광고비	이준영 (치대 74)	500	테네시	200	배명애 (간호 47)	225	박우선 (공대 57)	200	서경희 ()	100
강호석 (상대 81)	오인환 (문리 63)	200	후원금		배정희 (사대 54)	200			김중민 (공대 64)	150
김원탁 (공대 65)	임종식 (의대 51)	1,000	남가주		신운남 (농대 70)	2,000	시카고		손재욱 (가정 77)	500
남욱현 (경영 84)			김영순 (음대 59)	400	양거명 (약대 49)	25	김연화 (음대 68)	150	송영두 (의대 56)	500
서동영 (사대 60)			김원탁 (공대 65)	200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용락 (공대 48)	500	신성식 (공대 56)	200
윤상래 (수의 62)			김인중 (농대 74)	25	이운순 (의대 52)	325	조형원 (약대 50)	500	제갈은 (문리 59)	150
신동국 (수의 76)			김일영 (의대 65)	200	이전구 (농대 60)	1,100	최희수 (문리 67)	75	조정현 (수의 58)	300
신혜원 (사대 81)			김종표 (법대 58)	500	이준행 (공대 48)	2,000	아리조나		조화연 (음대 64)	150
이병준 (상대 69)			김창신 (사회 75)	100	정인식 (상대 58)	200	전영자 (미대 58)	50	지흥민 (수의 61)	200
이경림 (상대 64)			한재은 (의대 59)	25	정창동 (간호 45)	75	오레곤			
이병준 (상대 55)			수재민 돕기 후원금		조정현 (수의 58)	100	김상순 (상대 67)	200	플로리다	
이종모 (간호 69)			윤상래 (NE)	300	최한용 (농대 58)	500	송재용 (의대 69)	200	전영자 (미대 58)	50
이준영 (치대 74)			정정우 (수의 74)	240	허유선 (가정 83)	100			커네티컷	
정재훈 (공대 64)			정재훈 (공대 64)	240	뉴잉글랜드				김기훈 (상대 52)	200
주기목 (수의 68)			김문소 (NE)	100	고일석 (보건 69)	1,000			유시영 (문리 68)	500
지흥민 (수의 61)			고일석 (NE)	200	김문소 (수의 61)	80	워싱턴 DC			
김일영 (의대 65)			김은숙 (NE)	200	김병국 (공대 71)	65	강길중 (약대 69)	200	캘리포니아	
광고비			김연화 (음대 68)	200	김선혁 (약대 59)	100	권철수 (의대 68)	200	한광수 (의대 57)	400
DUO Info.	1,200		신운남 (NY)	200	김은한 (의대 60)	850	박용걸 (약대 56)	200	하와이	
DUO Info.	400		이영송 (치대 63)	400	김재호 (공대 56)	100	박평일 (농대 69)	300	김상태 (의대 57)	400
DUO Info. (10)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송미자 (농대 62)	65	서윤석 (의대 62)	200	하트랜드	
DUO Info. (11/6)	400		임창희 (공대 73)	100	윤영자 (미대 60)	100	오인환 (문리 63)	200	오명순 (가정 69)	500
DUO Info. (12/8)	400		전경철 (공대 55)	4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문항 (공대 46)	100	이상강 (의대 70)	10,000
DUO Info. (1/9)	400		정동구 (공대 57)	5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인옥 ()	68)	최은관 (상대 64)	300
DUO Info. (2/8)	400		정재훈 (공대 64)	110	이희규 (공대 69)	200	정선주 (박명철)	3,000	휴스턴	
DUO Info. web (2/23)	500		최은관 (상대 64)	300	정정욱 (의대 60)	1,100	장효열 ()	100	김옥균 (공대 54)	200
JayoneFood (1/22)	1,800		하기환 (공대 66)	200	정태영 (문리 71)	100	한의생 (수의 60)	200	진기주 (상대 60)	500
KISS (1/17)	3,000		하선호 (치대 81)	200	정해숙 (간호 66)	65	워싱턴 주		최영기 (공대 63)	200
SeAh 이병준	1,500		북가주		최선희 (문리 69)	200	하주홍 (경영 77)	25		
SNUAA, Inc (남가주)	500		강정수 (문리 62)	125	최홍균 (공대 69)	1,000	조지아			
노명호 (공대 61)	1,000		이성형 (공대 57)	150	루이지애나		주중광 (약대 60)	2,000		
발전기금 (12/6)	700		김윤범 (의대 54)	200	강영빈 (문리 58)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최수강 (의대)	100						
신운남 (농대 70)	1,200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9명					
남가주	이정광 (상대 61)	이재덕 (법대 60)	조형준 (문리 62)	중부텍사스	김명자 (문리 62)
강신용 (사대 73)	이홍표 (의대 58)	이준행 (공대 48)		이광연 (공대 60)	이교락 (의대 53)
김재영 (농대 62)	임낙균 (약대 64)		시카고		이상강 (의대 70)
김정희 (음대 56)	임용오 (의대 57)	뉴잉글랜드	남상용 (공대 52)	조지아	
노명호 (공대 61)	전희택 (의대 60)	고일석 (보건 69)	이용락 (공대 48)	주중광 (약대 60)	
박명근 (상대 63)	제영혜 (가정 71)	김문소 (수의 61)	정 태 (의대 57)	허지영 (문리 66)	
박윤수 (문리 48)	조용원 (문리 66)	박경민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박중수 (수의 58)	차중환 (사대 54)	박영철 (농대 64)		필라델피아	
방명진 (공대 73)	한귀희 (미대 68)	오세경 (약대 61)	오하이오	서중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한홍택 (공대 60)	윤상래 (수의 62)	김용현 (경원 66)	손재욱 (가정 77)	
서영석 (의대 55)		윤선홍 (치대 64)		이만택 (의대 52)	
서치원 (공대 69)	뉴욕	정선주 (간호 68)	워싱턴 DC	지흥민 (수의 61)	
심상은 (상대 54)	김광호 (문리 62)		강연식 (사대 58)	플로리다	
오재인 (치대 33)	김중권 (의대 63)	루이지애나	권기현 (사대 53)	김중원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오인석 (법대 58)*	강영빈 (문리 58)*	방은호 (약대 43)	하트랜드	
이병준 (상대 55)	윤정욱 (약대 50)		오인환 (문리 63)	김경숙 (가정 70)	
이세열 (사대 57)	이기영 (농대 70)	미네소타			
이종도 (공대 66)	이전구 (농대 60)	남세현 (공대 67)			

- 종신이사 (고인)
- * 표: 한변이상 내신 분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1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ISOPE+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PO Box 789
Los Angeles, CA 90010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윤남 변호사
신윤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려지

이혁엽 알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요. <편집부>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옥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이정수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호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해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김승호 (공대 71)

Bring the Salon Home
KISS[®]

아름다운 세상, **KISS**가 이어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뷰티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더 많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KIS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www.kissusa.com

김광호 (문리 62), 신규천 (상대 73), 한규상 (미대 84), 김영훈 (공대 93)